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법원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Supreme Court of Korea vol.390
2017. 10.

법원 사람들

AUTUMN



DUNK SHOT

이런 황금 연휴가 또 있을까요?
추석에는 가족, 친구들과 깊은 정(情)도 나누고
못다한 이야기보따리도 술술 풀어봅시다.
인생 최고의 연휴에 걸맞은 추억의 덩크슛도 날려봅시다.

Contents

2017 October vol. 390



Cover Story

이번 호 표지 주인공들은
농구로 삶의 활력과
재미를 찾고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농구 동호회
'S.E.D.C. WARRIORS'
회원들입니다.

발행일 2017년 10월 1일
통권 390호
발행인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편집인 공보관 조병구
편집총괄 홍보심의관 이종표
편집기획팀 박가영, 송소현, 이경미
발행처 법원행정처 공보관실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전화 02)3480-1456 팩스 02)533-5484

법원사람들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portal/gongbo/PeoplePopupList.work?gubun=7>
이메일 법원사람들@scourt.go.kr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scourt_korea
트위터 http://twitter.com/scourt_korea
블로그 http://blog.naver.com/law_zzang,
http://blog.daum.net/law_zzang
유튜브 http://www.youtube.com/scourt_korea
인스타그램 <http://www.instagram.com/sourthkorea/>
기획·디자인·인쇄 (주)성우에드컴 전화 02)890-0900

소통으로
With Local

- : 서울동부지방법원
- 04 **프롤로그**
- 06 **법원 톡!톡!**
서울 동부지역의 새 시대를 열다
- 10 **포토 카툰**
서울동부지방법원 농구 동호회
- 12 **Tour**
강과 숲, 호수와 공원에 머물다

공감으로
With Court

- 16 **핫 이슈**
제3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특집 '도전! 골든벨' 개최
- 18 **나의 일 나의 삶**
겨울 한라산을 오르며
- 24 **테마가 있는 글 I**
자전거와 사랑 지키기
- 26 **테마가 있는 글 II**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 30 **조사심의관 코너**
어문 규정들을 소개합니다
- 35 **법원으로의 초대**
나사렛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대법원 견학



행복으로
With People

- 36 **어린이 소식지**
골든벨은 내가 올려주마~ 외 1
- 38 **현장 속으로**
2017년 법원전시관 기획전시 「국민참여재판」 개막식
- 40 **스타일링 Q**
가을의 문턱에 서서
- 연제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실무관
- 44 **만나고 싶습니다**
〈인간시장〉의 작가, 이제 '사랑'을 말하다
- 소설가 김홍신
- 48 **트렌드 따라잡기**
우리에게 외국인의 시선이 의미하는 것
- 50 **Health**
가을철 건강백서
- 52 **COURT NEWS**
- 54 **독자 마당**



서울동부지방법원

글 · 사진 편집부

사랑은 기적을 낳고
기적은 또 사랑을 낳습니다.
사랑의 순환이 그려가는 아름다운 세상!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추구하는 이상향입니다.

올 봄 문정동 법조타운에
새 동지를 트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법원을 찾는 수많은 지역민들에게
위로와 치유, 희망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의 연금술사가 되어
따뜻한 마음과 공정한 눈으로
최고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세상을 환히 밝히는
사랑의 기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서울 동부지역의 새 시대를 열다

지난 3월, 세간의 눈길이 서울 송파구 문정동으로 쏠렸다. 1971년 9월 1일 서울민사·형사지방법원 성동지원으로 출발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이 40여 년간의 자양동 시대를 마감하고 문정동 법조타운에 새롭게 등지를 틀었기 때문이다. 서울 동부지역민들의 분쟁을 해결하고 권리와 재산을 지키는 기본권 수호기관으로서 새롭게 옷을 갈아입은 서울동부지방법원. 그 현장을 함께 방문해보자.

글_이경희 · 사진_김희진 · 영상_오민석

서울동부
지방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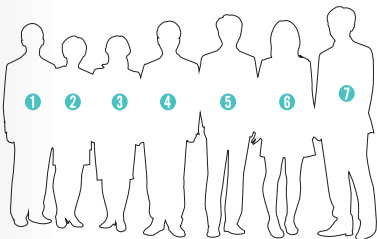




서울동부지방법원 신청사는
무엇보다 방문객들의 편의성과
사회적 약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꼼꼼히 배치하고 운영함으로써
법원의 상징적인 의미를 실제로
보여주고 있다.



- ❶ 박종원 판사
- ❷ 김현아 사무관
- ❸ 김경란 부장판사
- ❹ 이승영 법원장
- ❺ 한지성 실무관
- ❻ 최은실 실무관
- ❼ 정민수 실무관



모두를 위한 가장 완벽한 공간

새집으로 이사를 갔으니 새집을 구경하는 게 먼저다. 지하 1층~지상 12층으로 이루어진 서울동부지방법원 신청사에 들어서면, 워낙 협소했던 공간 탓에 서로 어깨를 부딪치면서 다녔던 자양동 시절은 이제 흘러간 추억이 됐음을 깨닫게 된다.

이승영 법원장은 “이전 환경과 비교해 놀랍도록 넓어지고 쾌적해진 공간 덕분에 직원들의 자부심과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며 법정 대기공간 확충, 스마트 재판 알리미, 법원청사 안내 키오스크, 전자기일표, 다양한 휴식공간의 증가로 민원인들의 만족도 또한 크게 좋아졌음을 설명했다. 자양동 시절부터 함께해온 김경란 부장판사 역시 전통적으로 사법부 직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근무지 중 하나인 서울동부지방법원의 근무환경이 좋아진 것은 안팎으로 수많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신청사는 무엇보다 방문객들의 편의성과 사회적 약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꼼꼼히 배치하고 운영함으로써 법원의 상징적인 의미를 실제로 보여주고 있다. 1층 정문의 한쪽 여단이문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이 설치돼 있고, 종합민원실 내부는 전체 창구의 턱을 낮춰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과 눈높이를 맞추는 등 구석구석에 세심한 배려가 당연한 듯 자리 잡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최우수등급을 받고, 전 청사에 걸쳐 배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깜짝 놀랄 만큼 잘 갖춰졌다’는 평가를 받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셈이다. 여기에 태양광과 지열 등을 이용한 친환경 건축 시스템은 비용 절감은 물론 환경과 에너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데 일조하고 있다.

최초 혹은 최고의 사법 서비스를 자랑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자양동 시절부터 다양한 사법 서비스 제도를 운영해온 기관으로도 정평이 나있다. 이곳은 ‘최초’라는 수식어가 유독 많다. 먼저 ‘중학교 자유학기제 활성화와 사법부 법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후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법조 관련 직역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최초로 시범 실시했다. 또 최초로 시범 실시한 사법 서비스 개선협의회 제도는 민원서비스의 질을 크게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승영 법원장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노력이 그저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자성하고 개선해 지역민들이 언제든 믿고 찾을 수 있



서울동부지방법원 음악회 사진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노력이

그저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자성하고 개선해

지역민들이 언제나 믿고 찾을 수 있는

이웃이 되기 위해 쉼 없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는 이웃이 되기 위해 쉼 없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했다.

따뜻하고 차별 없는 사법 서비스를 꿈꾸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행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무엇보다 국민을 위한 사법기관으로서 지역민과 함께 걷는 동반자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지난 5월 30일에는 문정동 신청사 준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준 국민에게 보답하는 의미로 법원 가족, 다문화가족, 지적장애인, 시각장애인, 청소년,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을 초청해 ‘가정의 달 맞이 국민과 함께하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음악회’를 개최했다. 9월 21일에는 ‘2017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기념해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와 함께 법원 내에 추석 직거래 장터를 열어 도·농 상생의 장을 마련하였다. 모두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여기에 2008년 발족해 지금까지 꾸준히 활동해온 ‘사랑나눔 자원봉사단’의 활약도 빼놓을 수 없다.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해 업무 보조, 김장 나누기, 말벗 활동 등 다양한 지원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어두운 곳까지 살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서울동부지방법원 가족들의 열정은 새 보금자리로 이사한 후에도 변함없이 이어질 예정이다.

구성원이 행복해야 민원인들 또한 행복할 수 있다는 소신 위에서 앞장서 달리는 이승영 법원장, 그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진정성 가득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함께 뛰는 법원 구성원들. 그들이 있기에 서울 동부지역민들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배경을 가진 사법 서비스의 수혜자인지도 모른다. ☐



Mission Start

추석맞이
송편 먹기 게임!



Interview



이승영 서울동부지방법원장



QR코드를 스캔하면
유튜브에서 취재
동영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문정동 신청사에서 새롭게 도약하는 우리 법원을 기대해주십시오”

신청사 이전과 함께 사법부 관계자들과 관할지역 시민들은 우리 서울동부지방법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새 부대에 담긴 새 술’의 역할과 책임감을 기대하는 것인바, 저를 비롯한 모든 구성원이 이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부임한 이래 저는 무엇보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차별 없이 사법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열린 법원, 법정에서의 소통과 설득 실현을 통해 신뢰받는 법원, 나아가 구성원의 행복 증진을 바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확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친절한 법원, 이것이 바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우리 법원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법원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법부의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우리 법원이 표어로 삼고 있는

‘따뜻한 마음과 공정한 눈으로 언제나 국민 곁에 서는 법원’이 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이야기를 직원들에게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일 법원을 방문하는 국민을 직접 만나는 법원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심을 다하여 국민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차별 없는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증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보내주신 관할 지역민 여러분의 깊은 신뢰에 감사드리며, 또 우리 법원이 문정동 신청사에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도 고개 숙여 인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국민의 뜻을 무겁게 새기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본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것만큼은 우리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최고다!

MINI Interview

서울동부지방법원 사람들의 한마디



김경란 부장판사

아마 전국에서 우리 법원처럼 관내에 공원이 많은 법원도 없지 않을까요? 올림픽공원, 독성한강공원, 서울숲까지... 마음만 먹으면 어느 공원이든 갈 수 있으니 삭막한 도시 생활에서 이보다 큰 행복은 없을 듯합니다. 덕분에 우리 법원 식구들의 삶의 질까지 올라가는 기분이에요.



정민수 실무관

우리 법원에서 최고인 부분을 이야기하려면 저는 단연코 ‘따뜻한 정’을 내세우고 싶습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알아서 서로 돕고, 바쁜 업무 중에 스쳐 지나가는 그 짧은 시간에도 따스한 말 한마디 건네는 우리 법원의 분위기는 정말 최고죠. 오래오래 일하고 싶은 우리 법원을 사랑합니다.



박종원 판사

저는 푸른 하늘을 꿈고 싶습니다. 고층빌딩이 우후죽순처럼 솟아 있는 서울 한복판에서 넓은 하늘을 보기란 사실 쉽지 않잖아요. 제 사무실이 11층에 있는데 유리창 밖으로 거칠 것 없이 탁 트인 하늘을 바라보는 기분은 정말 최고입니다. 멋진 구름을 보면서 사진도 많이 찍고 있지요.



최은실 실무관

저는 우리 법원의 공간을 자랑하고 싶어요. 바로 다목적 홀로도 사용하는 직원들을 위한 예약장이 그곳입니다. 조영부터 음향시설, 결혼식이 열릴 경우 아름다운 꽃장식까지... 서울 시내의 어느 예약장과 견줘도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멋진 우리 법원의 예약장 법원 가족 여러분, 많이 이용해주세요.



김현아 사무관

저는 안과 밖의 조화가 완벽한 점을 우리 법원의 최고 장점으로 꼽고 싶어요. 이번에 신청사로 이사하면서 외적인 환경과 공간이 완벽해졌고 내부적으로는 서로 아끼고 배려하는 우리 법원 특유의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말 그대로 더욱 근사한 직장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해요, 우리 서울동부지방법원!



한지성 실무관

저는 우리 법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정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근무한 지 11개월이 됐는데 한마디로 수준이 높다고나 할까요. 하하, 외모는 물론 내면까지 모두 아름다운 분들로 저의 출근길이 즐거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늘 지금처럼 아끼고 서로 도우며 오래오래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농구가 있어서 더 즐거운 인생!

서울동부지방법원 농구 동호회

글_이경희 · 사진_김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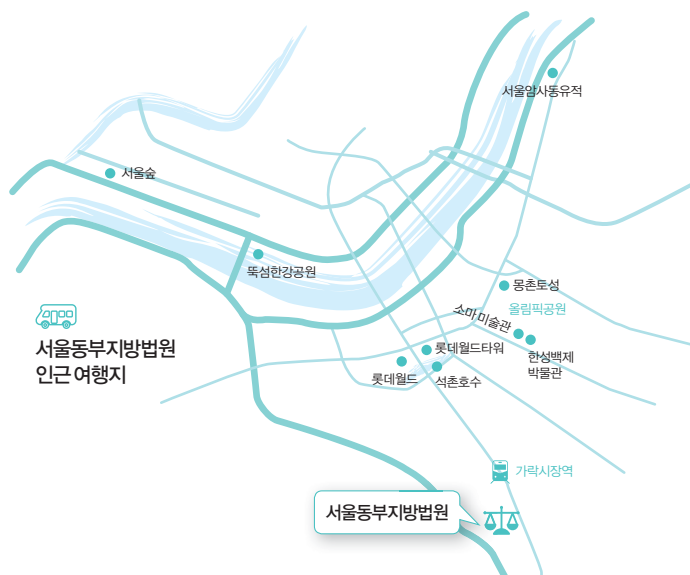




강과 숲, 호수와 공원에 머물다

서울특별시지방법원의 인기 여행지





가을바람이 갇들면 서울은 산책 모드로 변신한다. 서울 동부권은 한강을 축으로 걷고 싶고 놀고 싶은 여행지들이 주변에 그득하다. 숲과 골목, 호수와 공원이 어우러져 가을 나들이를 부추긴다.

글 · 사진_서영진(여행칼럼니스트) · 사진협조_서울시, 서울스카이

한강 변을 걷거나 달리는 기분은 유쾌하다. 오래된 서울의 숨결에 다가서는 느낌이다. 예전에 섬이었던 공간, 나루터였던 포구는 이제는 그 유래만 남은 채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다. 한강 변을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것은 개발 이전의 서울과 느리게 조우하는 듯해 애착이 간다. 한강시민공원 독섬지구는 한강변 여행의 출발점이 되는 곳이다. 이곳에서 잠실대교, 올림픽대교를 거쳐 광진교까지 향하거나, 짙막한 여정을 원하면 성수대교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 예전에는 나루터였던 광진교까지는 버드나 무길이 있어 운치를 더한다.



1. 강변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와 자전거 길에는 한강의 정취가 오롯이 묻어난다.
2. 가을 나들이를 부추기는 서울숲 산책로.
3. 강동구 등 서울 외곽으로 벗어날수록 한강변에는 가을향이 가득하다.
4. 서울 도심을 조망할 수 있는 서울스카이 전망대.



숲과 동물들의 작은 향연, 서울숲

성수대교 인근에서는 서울숲이 반갑다. 성동구 서울숲은 울창한 숲과 산책로가 잘 조성돼 한강 일대의 보물 같은 곳이다. 일단 서울숲에 붙는 화려한 수식어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뉴욕에 센트럴파크, 런던에 하이드파크가 있다면 서울엔 서울숲이 있다'. 숲에는 참나무, 산벚나무 등 40여만 그루의 한국 고유종 나무가 심어져 있으며 야생동물들의 공간도 마련돼 있다.

서울숲을 미로처럼 가로지르는 길에서는 가을 산책의 묘미가 더욱 무르익는다. 30여 곳의 체험공간 곳곳이 조각 작품으로 채워졌다. 거인상 등은 숨바꼭질하는 무대로 변신하고, 잔디밭에서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흩어진다. 이 밖에도 숲 전역에 아기자기한 볼거리가 넘쳐난다. 나비, 곤충뿐 아니라 거북, 도롱뇽 등 흥미로운 동물들을 구경할 수 있다. 전망 테크 옆의 '작은 동물의 집'에서는 기니 피그들이 양증맛게 뛰어논다. 꽃사슴 우리에서는 깊은 눈망울의 사슴에게 직접 먹이를 주는 오붓한 시간이 주어진다. 서울숲까지 오가는 길은 분당선 서울숲역이 생긴 뒤로 꽤 편리해졌다.

최고층 건축물과 유적 사이를 거닐다

서울숲, 독섬에서 한강을 건너면 잠실로 연결된다. 석촌호수가 동지를 튼 송파구 잠실 일대는 서울 동부권 관광의 메카로 변신 중이다. 잠실관광특구는 석촌호수 카페거리, 방이동 먹자골목을 거쳐 올림픽공원까지 이어진다. 먹고 놀고 걷는 행위가 편리한 동선에서 가능하다.

올해 초 개장한 롯데월드타워는 이 일대 새로운 랜드마크로 우뚝 섰다.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높이(555m)의 건물로 123층까지 솟아 있다. 높이 478m의 유리바닥 서울스카이 전망대에 오르면 산봉우리에 선 듯 서울과 한강 일대가 발아래 아득하게 도열한다. 롯데월드에서 펼쳐지는 스릴 넘치는 재미 뒤로는 석촌호수의 아늑한 산책길이 이어진다. 석촌호수는 가을이면 단풍으로 단장하고, 호수 변으로는 카페거리가 밤을 밝힌다.

방이동 먹자골목에서 배를 채운 뒤 올림픽공원으로 향하



5. 가을 단풍과 어우러진
석촌호수변 매직아일랜드.
6. 서울숲 곳곳에서 만나는
이색 조형물.



면 다채로운 조각이 어우러진 녹색지대가 모습을 드러낸다. 몽촌호와 몽촌토성길은 상념의 길이다. 몽촌토성길은 한성 백제시대의 성곽길로 2.7km에 달한다. 길옆에서 만나는 유적과 한성백제박물관, 소마미술관 등은 나들이를 풍성하게 채워준다.

서울의 동쪽 끝인 강동구 길숙이 들어서면 한적한 도시와 다시 조우하는 길이 나온다. 빌딩숲 대신 한강변에 갈대숲이 조성돼 고요한 가을 향이 묻어난다. 서울의 선사시대를 엿보는 강변 암사동 유적과 추억의 태권브이를 만나는 '브이센터' 등은 흥미로운 반전으로 여행의 여운을 남긴다. ☐

TIP

먹거리

‘왕십리 곱창골목’ VS ‘건대 양꼬치골목’



날이 서늘해지면 따끈한 구이가 입에 당길 때다. 서울 동부권에는 독특한 테마를 갖춘 먹자골목들이 들어서 있다. 성동구 왕십리의 간판 메뉴는 곱창이다. 광진구 건대 앞에선 양꼬치골목이 고소한 냄새로 명함을 내민다.



왕십리 곱창골목은 곱창 마니아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황학동의 곱창집들이 재개발로 이동하면서 왕십리 곱창골목이 새롭게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왕십리 곱창골목에서는 아들이야한 곱이 잔뜩 들어간 소곱창과 연탄불에 올린 돼지곱창, 채소곱창, 곱창전골 등 다양한 곱창 요리를 입맛에 따라 골라 맛볼 수 있다. 20여 년 전통의 곱창집 10여 곳이 몰려 있으며 식당마다 특유의 맛 노하우를 간직하고 있다.



건대입구역 일대는 최근 양꼬치 식당이 문전성시다. 해 질 무렵이면 양꼬치를 맛보기 위해 몰려든 청춘들로 역 뒷골목이 빼곡하게 채워진다. '중국인 거리'로 통칭됐던 맛골목에 양꼬치식당만 수십 개가 성업 중이며 전통 중국식으로 양꼬치를 내놓는다. 소스를 살짝 바른 양꼬치를 숯불 위에 올려놓고 중국 맥주인 칭다오를 곁들여 마시면서 꼬치를 돌려가며 굽는 맛이 일품이다.



구이 대신 회를 선호한다면 송파구 가락시장장을 두드려볼 일이다. 서울에서 노량진수산시장과 쌍벽을 이루는 가락시장 수산시장이 가을 입맛을 돋운다. 이곳 회센터에서는 싱싱한 제철 회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맛볼 수 있다. 수산시장에서 회를 뜬 다음 상차림 비용을 내고 식당에서 맛을 보는 구조다. 광어, 민어 등 일반회뿐 아니라 대게, 낙지, 전어와 조개류까지 다양한 제철 해산물이 가득하다.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응원합니다!”

제3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특집 ‘도전! 골든벨’ 개최



지난 8월 13일 일요일, 대법원 청사 중앙홀에서는 특집 ‘도전! 골든벨’ 녹화가 한창이었다. 제3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맞아 열린 이번 방송은 수많은 학생들과 학부모, 판사와 법원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감동과 웃음, 진지함의 한마당이었다. 그 현장을 지상중계한다.

글_이경희 · 사진_안정진

제3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함께 즐긴 청소년들

제3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맞아 열린 KBS 특집 ‘도전! 골든벨’은 이제 사법부의 주요 행사로 자리를 잡은 모양새다. 올해 ‘도전! 골든벨’은 1회 서울가정법원, 2회 수원지방법원에 이어 세 번째로 의정부지방법원이 주최했다. 오늘 녹화에 참여하여 골든벨에 도전한 출연자들은 서울·경기

지역의 청소년참여법정 참여인단 및 법원 견학 프로그램 참가 고등학생들 95명과 전국 각지에서 근무하는 판사들 5명이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녹화는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지만 다양한 구성과 이벤트로 지루할 틈이 없었다. 초대손님으로 ‘여자친구’와 ‘CLC’가 나와 학생들의 뜨거운 환호성을 받



았으며, 법원 밴드 '산들바람'도 휴식시간에 신나는 무대를 선사했다. 특히 '산들바람'의 보컬이 의정부지방법원 총무과에서 근무하는 김효주 실무관이었던 덕분에 주최 측 관계자들은 한층 더 신명 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오늘 녹화 중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것은 단연 수원지방법원의 김태형 판사였다. 전직 케이بل방송 VJ 출신인 그가 직접 써서 나온 자작 랩에 참가자들이 감탄과 환호성을 감추지 못했다.

더 가깝게, 더 친근하게

오늘 문제는 대한민국 법원의 날과 관련, 법과 관련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 하지만 참가 학생들 대부분이 청소년참여법정 참여인단으로 활동하는 만큼 다들 제법 만만치 않은 실력들을 보여줬다. 출제 범위 또한 매우 다양했다. 조선시대부터 지금의 세계 정세까지 그야말로 급변하는 글로벌 세상에 폭넓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맞추기 힘든 문제들이 연이어 출제되었다. 지난 회차보다 다양한 구성과 재미를 추구한 '대한민국 법원의 날' 특집 도전! 골든벨'에서 학생들은 물론, 관람객들까지 매우 흥미진진하게 지켜본 코너는 바로 모의법정이었다. 아이언맨이 지구를 구하느라 시민들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사실을

두고 검사와 변호사는 물론 배심원들까지 팽팽한 의견 차이를 둔 이 공방전은 영화 속 이야기를 현실로 옮겨와 실제로 있을 법한 사건으로 다룸으로써 모두가 즐거워했다. 문제가 거듭되자 하나둘 씩 칠판을 챙겨 사라지는 학생들, 결국 최후의 1인으로 남은 사람은 박연주 학생이었다. 결국 마지막 문제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지만 정작 본인은 “여기까지 올라올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여기까지 온 것도 친구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해내지 못했을 것이기에 아쉬움보다는 감사함이 더 크다”며 어른스러운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제3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기념해 열렸던 특집 '도전! 골든벨'.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볼거리와 알찬 이벤트로 모두를 즐겁게 했던 오늘 행사가 '대한민국 법원의 날'과 함께 모두의 마음속에 오래오래 남기를 기대해본다. c

MINI INTERVIEW

**“특집 도전! 골든벨은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이룬 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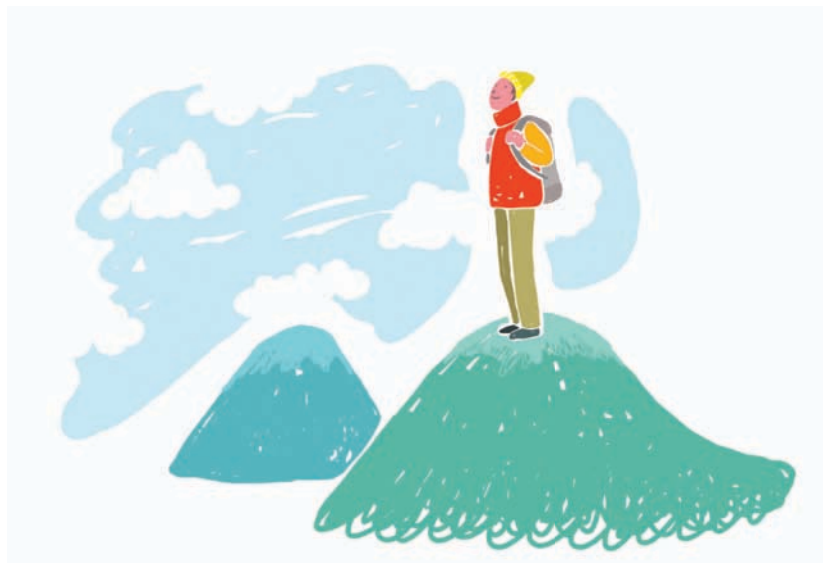
이용호
의정부지방법원 기획법관



우리 의정부지방법원은 특집 '도전! 골든벨'을 지난 4월부터 준비해왔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고 매순간 손에 땀을 쥐는 돌발상황들이 일어났지만 전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일했기 때문에 무사히 방송까지 해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방송으로 청소년들이 법과 더 가까워지고 법원에 더 친근함을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 오늘 출연한 다양한 이력의 판사들을 보면서 법원은 어렵고 딱딱한 기관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기관이라는 인식도 갖기를 바랍니다.

겨울 한라산을 오르며

글_ 심홍길 서울행정법원 판사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인근 초등학교 운동장을 뛰면서 밖의 날씨를 살핍니다. 햇빛이 비추지만 공기는 차갑고 바람이 세게 불며 길 여기저기에는 며칠 전부터 내린 눈이 녹지 않아 눈이 가득합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도 눈으로 뒤덮여 흰색으로 반짝입니다. 전 설레는 마음으로 운동장을 10바퀴 정도 뒀 다음 집으로 돌아옵니다. 샤워, 청소, 빨래를 마친 후 얇은 옷을 3~4개 겹쳐 입고, 아이젠을 넣은 가방을 메고서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사륜구동차를 타고 시내를 벗어나 오늘의 목적지로 숨 가쁘게 달려갑니다. 그렇습니다. 제목을 통해서 미리 아셨겠지만 전 오늘도 겨울 한라산을 오르려고 합니다.

한라산에 오르는 경로는 관음사, 성판악, 돈내코, 영실, 어리목이 있습니다. 한라산의 정상, 즉 백록담에 오르려는 경우 관음사, 성판악 경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관음사 경로가 성판악 경로보다 경사가 심해 대부분 등산객은 성판악에서 올라 백록담에 이른 후 관음사로 내려오는 경로를 이용합니다. 백록담까지 등산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등산객들은 어리목에서 올라 윗세오름에 이른 후 영실로 내려가는 경로나

그 반대의 경로로 한라산을 둘러봅니다. 후자의 경우 좀 더 여유가 있는 등산객들은 윗세오름에 이른 후 남벽 분기점까지 갔다가 돈내코로 내려가는 경로, 또는 남벽까지 갔다가 다시 윗세오름으로 돌아와 어리목이나 영실로 내려가는 경로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전 오늘 친구와 점심식사 약속이 있어 시간이 조금 덜 걸리는 경로, 즉 어리목에서 올라 윗세오름에 이른 후 남벽 분기점에 들렀다가 다시 윗세오름으로 돌아와 영실로 내려가는 경로를 이용해 한라산을 둘러보려고 합니다. 제주시는 제주시청을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을 구제주, 제주도청을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을 신제주라 칭합니다. 어리목은 신제주 지역에서 도깨비 도로로 알려진 1100도를 따라 서귀포시를 향해 남쪽으로 가는 도중에 있습니다. 시내에서 한라산으로 향하는 도로는 모두 오르막이다 보니 눈이 오면 도로를 통제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리목까지 가지 못할 때도 적지 않은데, 전 오늘 운이 좋게도 제 차로 등산로 입구에 있는 어리목 휴게소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도로가 통제되지 않았다고 해도 도로에 쌓인 눈이 녹지 않아 미끄럽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자동차 바퀴에 체인을 채우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리목 삼거리에서 어리목 휴게소까지 가는 도로가 통제되기도 해 어리목 휴게소에서 상당히 떨어진 어리목 삼거리에서부터 등산을 시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리목 등산로 입구에서 사제비 동산까지는 등산로 주변으로 땅과 잎을 잃은 나무와 그 가지에 눈이 수북이 쌓인 눈 세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리목에서 오르는 등산로가 백록담보다는 낮은 윗세오름을 향한 것이라고 해서 오르막 경사가 완만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어리목에서 윗세오름에 오르는 등산로의 경사는 성판악에서 백록담을 오르는 등산로보다는 급하고, 관음사에서 백록담을 오르는 등





산로보다는 완만한 것 같습니다. 등산로 주위의 울창한 나무들이 강한 겨울바람을 막아주고 겹겹이 옷을 껴입은 채 한 번도 쉬지 않고 올라서 그런지, 한겨울 산속에 있어도 땀이 비 오듯 쏟아집니다. 그래도 사제비 동산에 이를 때까지는 한 번도 쉬지 않겠다는 쓸데없는 고집으로 쉬지 않고 계속 산을 오릅니다. 중간중간 물을 마시지만 쉬지는 않고 오른 끝에 사제비 동산에 도착했습니다.

사제비 동산 주변의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 한라산 밖을 보니 눈의 흔적이 전혀 없는 오름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안을 보니 저 멀리 백록담이 보이면서 그 아래로는 눈으로 뒤덮인 넓은 평야와 같은 만세 동산이 보입니다. 사진에서 눈 위에 보이는 작은 나무들이 사실은 3m 이상 되는 나무들의 꼭대기 부분입니다. 사제비 동산부터 만세 동산까지는 방금까지보다는 오르막 경사가 완만해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생깁니다. 일행이 있다면 서로 대화하면서 산책하듯 오를 수 있습니다. 덤으로 주변을 살펴다 보면 눈과 나무들로 만들어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예술품을 만나볼 수도 있습니다. 산이 높다 보니 햇빛이 찼찼하다가 갑자기 구름이 끼면 한 치 앞도 볼 수 없을 정도로 날씨가 돌변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만세 동산을 걷다 보면 시시각각 조명이 변하는 조각공원을 걷고 있는 듯한 환상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연이 빚은 다양한 예술품을 감상하며 천천히 걷다 보니 생각보다 빨리 뒤흔세오름 대피소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대피소 여기저기에 저보다 먼저 도착해 삼삼오오 무리 지어 간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거나 사진을 찍는 등산객이 많습니다. 대피소 주변에 까마귀가 많이 있는데, 이 까마귀들은 등산객이



던져주는, 또는 먹고 버린 음식을 먹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높은 산에도 까마귀가 살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추운 겨울 산에서 인간 외에 다른 생명체를 만나 반갑기도 합니다. 저는 대피소에서 파는 육개장 사발면과 미리 준비한 초콜릿을 먹고 음료를 마시면서 30분 정도 쉬 후 남벽 분기점으로 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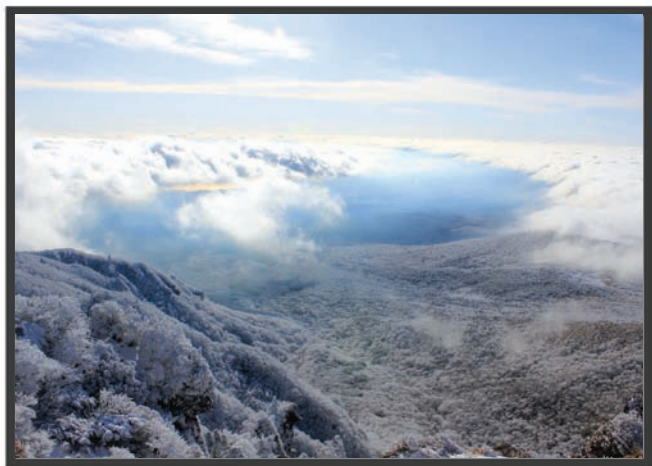
윗세오름 대피소에 오른 후 바로 하산하는 등산객이 많아서인지 남벽 분기점으로 가는 길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윗세오름의 높이가 높다 보니 그곳을 걷고 있는 제 발 밑으로 구름이 지납니다. 잠시 신선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높은 산을 등산하다 보면, 구름이 이동하다 산봉우리에 막혀 분리되었다가 산봉우리를 지나 다시 합쳐지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경험을 종종 하게 됩니다. 정말 신기한 경험입니다. 하지만 오늘 남벽 분기점까지 가는 길은 좀 지루합니다. 아주 잠시를 제외하고는 내내 구름이 끼 등산로에서 좀 떨어진 곳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겨울에 윗세오름을 수십 차례 올라봤지만 남벽 분기점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겨울 한라산을 조금 더 보기 위해 시간을 냈는데, 여기서부터는 날씨가 도와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새로운 모습을 더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갖고 길을 갑니다. 어느덧 서서히 구름이 걷히면서 저 멀리 집 같은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돈내코 경로의 종착점이기도 한 남벽 분기점에 위치한 평궤대피소입니다. 과거에는 이곳에서 백록담까지 직접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등산객들과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훼손이 심해 안식년을 갖게 됐고, 그동안은 입산이 통제된 상태라고 합니다. 잘 살펴보면 산장 주변에 백록담 방향으로 나무 계단의 흔적이 여기저기서 보입니다.

언젠가 다시 개방되는 날 이 경로로 백록담에 오르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잊세오름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잊세오름 대피소에 도착해 보니 등산객들이 더 많아졌고, 그 때문인지 까마귀도 더 많아졌습니다. 저도 그들 틈에 끼어 물을 마시며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영실로 내려가기 전에 화장실에 들렀는데, 창밖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다. 밖에 나와서 보니 쌓인 눈에 창문이 막혀 있었습니다. 한라산에 눈이 얼마나 많이 내리고 쌓이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영실로 내려가는 길은 백록담을 등지고 가는 길입니다. 백록담을 감싸고 있던 구름과 그 주변의 구름들이 서서히 내려오더니 여기에 눈바람이 합세하면서 주변이 어두워져 길이 잘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나마 이곳은 어리목 경로보다는 눈이 쌓이지 않아, 붉은 깃발을 보면서 등산로를 따라 천천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한라산은 본래 급작스레 날씨를 바꾸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줬다 감췄다를 반복합니다. 감췄던 모습을 다시 보여줄 거란 기대를 갖고 어두운 눈길을 쉬지 않고 걸어갑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자 예상대로 눈바람이 그치고 서서히 구름이 걷히면서 새로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구름이 양쪽으로 갈라지듯 걷히면서 그 사이에 아래로는 상고대가, 저 멀리에는 서귀포시가, 그리고 더 멀리에는 바다가 보입니다. 그리고 계단을 조금 더 내려가자 왼편으로 병풍바위와 폭포가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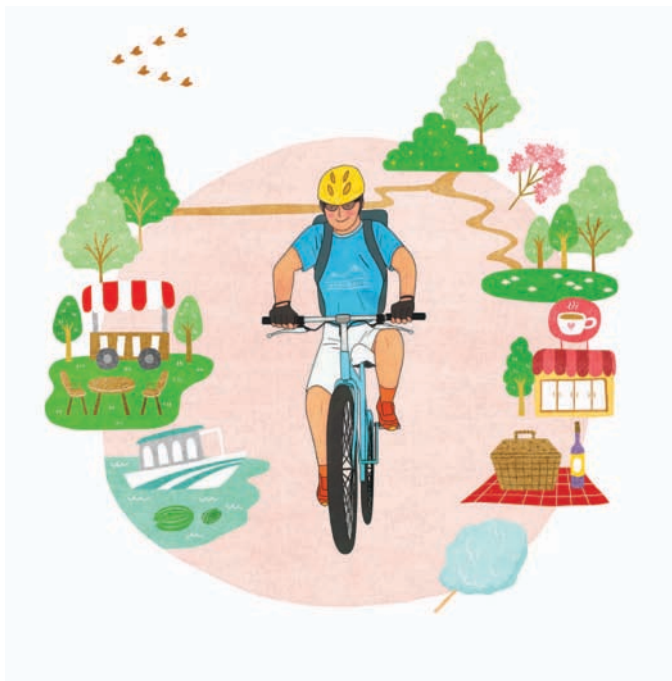


제가 남벽 분기점에서 다시 윗세오름으로 돌아가는 번거로움을 감수하면서 돈내코가 아닌 영실로 내려가기로 한 이유가 바로 이것들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한라산은 오늘도 제게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중간에 있는 전망대의 난간에 걸터앉아 물을 마시면서 병풍바위와 폭포를 유심히 둘러봅니다. 매번 봐도 새롭고, 오늘 이곳에 온 것이 잘한 일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가파른 계단을 조심히, 그러나 조금은 빠르게 내려갑니다. 그러다 계단이 없는 내리막 경사에서는 발과 엉덩이로 미끄럼을 타면서 눈썰매를 타듯 내려갑니다. 그리고 영실 입구 부근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제주시행 버스를 타고 어리목 삼거리까지 가서 내립니다. 어리목 등산로 입구까지 걸어가 주차해둔 제 차를 타고 제주시내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사실 이 내용은 4~5년 전 제가 제주에 근무하면서 경험한 것입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것을 글로 옮겼습니다. 사진은 비교적 사실에 가까울 것이나 글은 4~5년이 지나 정확하지 않은 기억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라 전부 사실이라 단정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글을 보시고 겨울 한라산을 오르려는 분이 계시다면, 사전에 반드시 현재도 이 등정기의 내용이 맞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진을 잘 정리하지 못하고 또 글 쓰는 재주가 부족하여, 한라산 등정기라면 당연히 백록담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나 정작 윗세오름 사진이 빠져 아쉬움을 느끼신 분께 실망감을 드린 것이 아닌지 하는 걱정을 합니다. 언제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새로운 겨울 한라산 등정기를 준비해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등산을 하면서 사진을 찍을 때 함께했던 제주법원의 가족들, 너무나 보고 싶네요. 건강히 잘 지내세요. ☺

자전거와 사랑 지키기

글_안점수 해남지원 행정관



나는 가끔 자전거를 타고 동네 한 바퀴 도는 것을 즐겨 합니다.

무더운 어느 토요일, 동네를 돌기보다는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보고 싶어 무작정 도로를 따라 달렸습니다. 몇 시간 후, “아차! 너무 멀리 와버렸구나!” 싶었습니다. 후회해도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집으로 돌아갈 생각에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중간에 그늘 안에 들어가 쉬면서 무심코 자전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힘이 많이 들었나? 자꾸 자전거 페달에 시선이 갔습니다.

페달(pedal), 국어사전에는

1. 발로 밟거나 눌러서 기계류를 작동시키는 부품. 자전거의 발걸이나 재봉틀의 발판 따위를 이른다.
2. 악기의 발로 밟는 장치. 그것을 밟음으로써, 피아노의 경우에는 음을 연장하거나 약음(弱音)으로 하고, 하프에서는 음의 높이를 변화시키며, 파이프 오르간의 경우는 음향 상태를 변화시키는 기능을 가진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전거 페달을 보면서 느낀 것을 몇 자 적어볼까 합니다.

페달을 힘차게 밟고 돌리면 자전거는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꾸준히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는 멈추거나 심하게는 넘어집니다. 사랑도, 공부도, 사업도 자전거처럼 페달을 밟고 돌리지 않으면 전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전거는 “우리 삶이다”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나는 10여 년 전 이혼을 했습니다. 아마도 사랑의 페달을 밟고 돌리는 것을 소홀히 했나 봅니다.

이 여름 나는 다시 반려자를 만나 열심히 페달을 밟은 결과, 7월 29일에 새 가정을 꾸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언덕에는 언제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태풍처럼 강하게, 또 어떤 날은 겨우 머리카락이 움직일 정도로….

저마다 자신이 만든 삶의 언덕! 어떤 이는 높고, 다른 이는 낮습니다. 언덕이 높으면 높은 만큼 오르기가 힘이 들 것이고, 낮으면 낮은 대로 힘이 들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낮은 언덕보다는 높은 언덕을 쌓고 오르기를 바랍니다. 힘들게 오르는 언덕 반대편에는 값진 내리막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삶의 언덕을 쌓고 그 언덕을 오르고 있습니다. 페달을 힘차게 그리고 꾸준히 밟고 돌려 정상에 서는 날, 여러분의 지친 어깨를 어루만지고 땀으로 범벅된 이마를 식혀줄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힘차게 페달을 밟으세요.

나는 오늘도 사랑을 지키기 위해 페달을 밟고 돌립니다.

여러분!

삶의 페달을 밟고 돌리세요. 꾸준히….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글_김영철 서울서부지방법원 행정관



100년도 더 된 이웃 나라 사람 ‘나쓰메 소세키’의 장편소설 제목이 아니다. 최근 한국 · 대만 · 일본 길고 양이들의 묘생(猫生)을 찍은 다큐멘터리 영화의 제목은 더더욱 아니다. 이 글은 지난 3월부터 우리 집 세 식구와 동고동락(同苦同樂)하게 된 ‘봄’이라는 녀석에 관한 이야기다. 맞다. 그 녀석은 고양이다. 그것도 ‘페르시안 친칠라’라는, 이름도 낯선 그런 종자다.

나도 내가 고양이를 키우리라고는 생각해보지 않았다. 동네 아파트 단지를 산책할 때면 여기저기서 불쑥 불쑥 고양이가 나타나곤 했다.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모습에 그저 섬뜩함을 느끼며 뒷걸음질 치기를 반복하던 내가 고양이와 동거를 한다고? 후훗. 그때는 상상도 안 해본 일이다.

최근 몇 년간 ‘동물농장’이나 ‘삼시세끼’ 같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고양이라는 반려동물에 대해 많이 익숙해진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TV 속에 있는 그저 인형 같은 피사체일 뿐 그제 실제 내 옆에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와이프도 내게 그랬다. “당신같이 깔끔 떠는 사람이 털 날리는 고양이를 키운다고? 택도 없어!”라고.

물론 계기는 있었다. 미혼인 처제가 독립하면서 고양이를 키우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도 러시아라는 먼 나라에서 수입했다는 몸값 좋은 녀석이었다. 사실 궁금하기도 했다. 어려서부터 강아지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마당에서 여러 번 키워보기도 했다.



초등학생 아들을 핑계 삼아 처제네 고양이를 보러 갔다. 그런데 이게 웬걸. 손바닥만 한 사이즈의 인형 하나가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이게 고양이인지 인형인지 정말 구분이 안 되었다. 강아지처럼 달려오지는 않았다. 그저 멀리서 이쪽 눈치를 보며 숨었다가 나타났다가를 반복했다. 사람 심리가 참 묘하다. 꼬리를 흔들고 헛바닥을 날름거리며 다가오는 강아지에게는 금세 질렸던 데 반해 이 녀석은 묘하게 내 맘을 쥐고 흔들었다. 쉽게 마음을 안 여는 이성(異性)에게 느껴지는 그런 감정이다.

그 후로 아들과 난 고양이 노래를 불렀다. 우리 집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와이프라는 분에게, 처음엔 단칼에 “안 돼”라고 했다. 하지만 무한반복의 효과인지 어느 순간부터 반대의 강도가 덜해지기 시작했다. 결국 1년의 설득 끝에 고양이 솥에 ‘구경만’ 가기로 했다. 정말 ‘구경만’ 하기로 하고 차를 몰았다.

그런데 저지르고 말았다. 고양이 솥에서 돌아오는 길, 우리 차 안에는 식구가 하나 늘어 있었다. 정말 그 자리에서 분양을 받으리라고는 상상도 못 한 일이었다. ‘예방접종은 어떻게 하지?’ ‘사람이 없는 낮에는 누가 돌봐주지?’ ‘털 날리는 건 어떡하지?’ 그 많던 걱정은 이제 쫓가에서 저 멀리 떨어져 맴돌 뿐. 그 녀석을 보고 있노라니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다. 혹시라도 키우게 되면 털이 짧고 안 날린다는 러시아블루종을 고려해보겠던 와이프. 털 날리기로는 둘째라면 서러워한다는 페르시안종을 골랐다. 이 녀석과 전생애 인연이라도 있는 걸까….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들 녀석이 물었다. “아빠, 이름은 뭐라고 지을 거야?” 잠시 고민이 됐다. 웬지 내가 지어야 할 것 같은 의무감이 들었다. 아들 이름을 내가 지었던 것처럼. 3월 하순경이었다. 그저 빨리 겨울이 끝나고 따뜻해지기만을 바라던 때다. 고민도 순간. “봄이라고 부르지 뭐!” 그렇게 그 녀석은 우리 가족의 ‘봄’이 되었다.

첫날부터 낮을 가리는 게 없었다. 이 집이 원래 자기 집이던 것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고양이는 낮선 환경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면 점원의 애기도, 고양이마다 차이가 있나 보다. 그러다 기적을 목격했다.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기적 따위는 아니다. 다만 강아지만 키워본 나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었을 뿐. 고양이가, 그것도 태어난 지 80일도 안 된 고양이가 스스로 자기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고 나왔다. 그것도 뒤처리까지 한답시고 모래에 잘 파묻어놓기까지 한 것이다.

봄이와의 첫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이 됐다. 낮에 사람이 없을 땐 어찌고 있을까 궁금했다. 웬걸. 돌아가 보니 집 안이 외출하기 전과 똑같았다. 집에 아무도 없는 느낌이었다. 물건을 어지럽힐 만도 한데 별로

그러질 않았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고양이는 야행성 동물이다. 쉽게 말해 사람이 없는 낮에는 그냥 계속 잔다. 자다가 배고프면 밥을 먹고 화장실을 다녀오고 물을 마시고 다시 잔다. 그렇게 사람이 올 때까지 잔다. 어디 아픈 건 아닐까 걱정될 만큼 잔다. 나중에 검색해보니 고양이들은 하루 평균 15시간 이상을 잔다고 한다. 심지어 아기 고양이 때는 더 많이 잔다는 것이다. 생의 절반 이상을 자는 데 보낸다는 게 적절한 표현이다.

밤에는 혼자 식구들과 떨어져 다른 곳에서 자는 척한다. 하지만 불을 끄고 잠시 기다리면 어느새 슬그머니 사람 자는 방으로 들어온다. 사람의 체온을 느끼며 자려는 것이다. 아침에는 머리맡에서 내 머리카락에 대고 그루밍을 한다. 중간중간 머리카락을 깨무는 녀석의 이빨에 놀라 잠을 깬다. 자리에서 일어나면 더 가관이다. 이내 그 유명한 ‘골골송’을 부르며 계속 나에게 몸을 비빈다. 세상에 이렇게 가까운 사이는 없을 듯이 몸을 비벼대며 애교를 떠난다. 이때만은 자기 몸을 만져도 그냥 가만히 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1분을 넘기지 않는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 손을 뿌리치고 도망간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마찬가지로 보자. 내 사랑을 몰라주고 뿌리치니 괜히 심술이 나면서 더욱 집착하게 된다. 한동안은 좀 쓰다듬어볼까 싶은 생각에 집 안에서 쫓아다닌 적도 있다. 그러다 이내 깨달았다. 포기하고 모른 체하고 있으면 어느새 내 손이 닿는 곳에 와 있곤 한다는 걸. 아! 도저히 저 밀당의 고수를 나는 당해낼 수가 없다.

개와 고양이의 차이만큼이란 말이 있다. 비슷하지만 많이 다르다는 뜻으로 종종 쓰인다. 내가 보기엔 다리가 넷 달리고 꼬리가 하나인 것 말고는 완전히 다른 종족이다. 무엇이 더 낫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못하겠다. 그건 개인의 취향일 뿐이니깐. 다만 고양이가 개만큼 사람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표현의 몸짓이 다를 뿐이다. 고양이는 오히려 사람의 감성을 이해하는 것 같다. 그래서인지 가끔은 사람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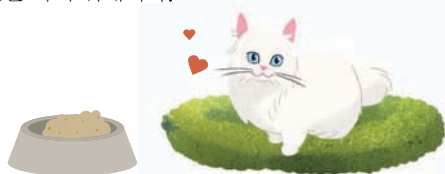
어느덧 봄이를 식구로 맞이한 지 4개월이 흘렀다. 태어난 지 7개월, 사람으로 치면 사춘기를 지난 청소년기로 볼 수 있다. 누군가는 무섭다고도 하지만 우리 눈에는 그저 아깽이(아기 고양이)로만 보인다. 아직도 품에 안으면 아기처럼 가만히 몸을 맡긴다. 이름도 다양해졌다. 그저 부르기 편한 대로 ‘보미’ ‘보말이’ ‘보로마리’.

최근에는 길냥이에 대한 관심도 생겼다. 길바닥 냥이들에게 서서히 연민의 정이 생겼다. 고양이의 평균 수명은 개와 비슷하다고 한다. 10~15년. 그런데 이 길냥이들은 평균수명이 2년이 채 못 된다고 한다. 혹독한 환경에 노출돼 갖은 질병과 기생충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사냥감이 없는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버린 음식물로 생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길냥이에 관한 더 놀라운 것은, 상당수 길냥이는 주인이 키우기 힘들어서 버린 것이 아니라는 점. 고양이의 본능에 따라 집을 뛰쳐나온 후 돌아가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먼 곳에서도 집을 찾아온다는 개와는 사뭇 다른 이야기다. 사실이었다. 수의사 역시 고양이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문단속을 잘해야 하며 이동 시에는 목줄을 하거나 이동장에 넣어야 한다고 신신당부했다. 그렇게도 사람을 좋아하는 고양이가 한번 집을 나가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 얘기를 듣고부터 길가에 어슬렁대는 길냥이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 주말 아들 녀석과 함께 작은 그릇에 사료를 담았다. 일주일 전부터 아들이 학교 갔다 돌아오는 길에 집 앞 나무 근처에서 어미와 새끼 고양이 두 마리를 봤다고 했기 때문이다. 함께 먹이를 주자고 약속했는데 주말에야 시간이 났다. 이제 TV에서 보던 캣맘, 아니지 캣파파가 된 것이다. 고양이를 목격했던 곳에 사료 그릇을 놓고 기다렸다. 잠시 후 어미 고양이가 나타나더니 먼저 먹기 시작했다. 먹이가 이상 없음을 확인했는지 안쪽을 향해 몇 번 울더니만,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나 같이 먹기 시작했다.

동물 전문가들에 따르면 고양이는 같이 사는 인간을 큰 고양이로 생각한다고 한다. 그리고 자신은 아기 고양이 정도로 여긴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왜 아침마다 내 머리맡에서 그루밍을 하는지 이해가 됐다. 난 봄이 녀석의 엄마 또는 아빠 고양이였던 것이다. 그래서 제목이 ‘나는 고양이로소이다’이다. 그런데 글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조금 다르게 얘기하고 싶어졌다. ‘나는 고양이로소이다’가 아니라 ‘우리 집 고양이가 사람으로소이다’라고. 내가 오히려 그 녀석에게서 사람의 감성을 종종 느끼기 때문이다. 또한 그 녀석 역시 사람과의 공존을 위해 많은 부분 자신의 본능을 희생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퇴근길에는 마트에 들러야겠다. 녀석이 좋아하는 닭 가슴살을 사기 위해서다. c



어문 규정들을 소개합니다

글_서여정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조사심의관으로 부임하기 전까지는, ‘법원사람들’은 제게 다달이 가벼운 즐거움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각급법원의 소식을 접하거나, 법원 가족들의 흥미로운 경험담과 재치 있는 글솜씨에 감탄하며 잠시나마 업무로 인한 피로감을 달래고는 했습니다. ‘조사심의관 코너’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를 많이 제공받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막상 제가 정기적으로 이 부분을 집필해야 하는 상황이 되니, 매달 받아보는 ‘법원사람들’의 무게가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하면 ① 이전의 글들과 겹치지 않는 주제로, ② 자연스레 미소가 머금어질 정도로 재미나고, ③ 법원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까? 조사심의관 코너의 원고마감일이 다가올 때마다 깊어지는 저의 고민 내용입니다.

이번호에서는 맞춤법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글 맞춤법이나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우리말과 우리글의 용법에 관한 내용들이 문화체육관광부 고시로 공지되어 있다는 사실은 모두 아시나요?

『한글 맞춤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12호(2017. 3. 28.)], 『표준어 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13호(2017. 3. 28.)], 『외래어 표기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14호(2017. 3. 28.)],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42호(2014. 12. 5.)] 등이 그것입니다.

『한글 맞춤법』은 총칙(제1장), 자모(제2장), 소리에 관한 것(제3장), 형태에 관한 것(제4장), 띄어쓰기(제5장), 그 밖의 것(제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록에서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등 21개의 문장부호의 이름과 사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5장 띄어쓰기 부분에서 기억해두면 좋을 만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한 개	차 한 대	금 서 돈	소 한 마리
옷 한 벌	열 살	조기 한 손	연필 한 자루
버선 한 족	집 한 채	신 두 켤레	북어 한 패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두시 삼십분 오초	제일과	삼학년
육층	1446년 10월 9일	2대대
16동 502호	제1실습실	80원
10개	7미터	

제44항 수를 적을 적에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십이억 삼천사백오십육만 칠천팔백구십팔
12억 3456만 7898

제46항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

좀더 큰 것 이말 저말 한잎 두잎

본용언과 연결되어 그것의 뜻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ㄱ	ㄴ
불이 꺼져 간다 .	불이 꺼져 간다 .
내 힘으로 막아 낸다 .	내 힘으로 막아 낸다 .
어머니를 도와 드린다 .	어머니를 도와 드린다 .
그릇을 깨뜨려 버렸다 .	그릇을 깨뜨려 버렸다 .
비가 올 듯하다 .	비가 올 듯하다 .
그 일은 할 만하다 .	그 일은 할 만하다 .
일이 될 법하다 .	일이 될 법하다 .
비가 올 성싶다 .	비가 올 성싶다 .
잘 아는 척한다 .	잘 아는 척한다 .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용언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

잘도 놀아만 **나는구나!** 책을 읽어도 **보고……**.
네가 덤벼들어 **보아라**. 이런 기회는 다시없을 **듯하다**.
그가 올 **듯도 하다**. 잘난 체를 **한다**.



고유 명사 및 전문 용어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8항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김양수(金良洙) 서화담(徐花潭) 채영신 씨
최치원 선생 박동식 박사 충무공 이순신 장군

다만, 성과 이름, 성과 호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띄어 쓸 수 있다.

남궁역/남궁 역 독고준/독고 준
황보지봉(皇甫芝峰)/황보 지봉

제49항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

(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ㄱ	ㄴ
대한 중학교	대한 중학교
한국 대학교 사범 대학	한국대학교 사범 대학

제50항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

(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ㄱ	ㄴ
만성 골수성 백혈 병	만성골수성백혈 병
중거리 탄도 유도 탄	중거리탄도유도 탄

다음으로, 『표준어 규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1항에는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 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 국어 혹은 문법 시간에 많이 되뇌던 구절인 것 같은데, 표준어 규정 제1항의 내용인 줄은 이번엔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표준어 규정』은 크게 제1부에서 표준어 사정원칙을, 제2부에서 표준 발음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1부 제2장

제2절 제8항의 내용이 유용할 것 같아 소개합니다.

제8항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다음 단어는 음성 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고
강충-강충 -동이	강충-강충 -동이	큰말은 '강충강충'임. ← 童-이, 귀-, 막-, 선-, 쌍-, 겁-, 바람-, 환-.
발가-송이	발가-송이	센말은 '빨가송이', 큰말은 '거송이, 빨거송이'임.
보통이 봉죽 뽕정-다리 아서, 아서라	보통이 봉죽 뽕장-다리 앗아, 앓아라	← 倭足, ~꾼, ~들다. 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말.
오뚝-이 주추	오뚝-이 주초	부사도 '오뚝-이'임. ← 柱礎-주춧-돌.

다만, 어원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다음 단어에서는 양성 모음 형태를 그대로 표준어로 삼는다.
(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고
부조(扶助) 사둔(査頓) 삼촌(三寸)	부주 사둔 삼촌	~금, 부춧-술, 밭~, 안~. 사-, 외-, 처~.



이번에는, 『외래어 표기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제1장에서 표기의 기본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고 (제1항),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으며 (제2항),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을 쓰고 (제3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제4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제5항)는 것입니다. 『외래어 표기법』은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과 함께 2017. 3. 28. 일부 개정되었는데, 각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오류 및 표준국어대사전과의 불일치 사항을 수정하는 것이지만, 『외래어 표기법』 제4장 제3절은 띄어쓰기 관련 사항이 일관성이 없어 어문생활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개정된 규정이며, 시행시기 또한 경과규정을 두어 2017. 6. 1.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므로, 특별히 지면을 빌어 소개해 보겠습니다.

현행	개정
〈외래어 표기법 제2장 표기 일람표〉 〈표1의 **〉 독일어의 경우에는 ‘에’, 프랑스어의 경우에는 ‘으’로 적는다. 〈표2〉 에스파냐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 이하 생략(집필자)-	〈외래어 표기법 제2장 표기 일람표〉 〈표1의 **〉 독일어의 경우에는 ‘에’, 프랑스어의 경우에는 ‘으’로 적는다. 〈표2〉 에스파냐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 이하 생략(집필자) -
〈외래어 표기법 제4장 제3절〉 제1항 ‘해’, ‘섬’, ‘강’, ‘산’ 등이 외래어에 붙을 때에는 띄어 쓰고, 우리말에 붙을 때에는 붙여 쓴다. 보기 카리브해, 북해, 발리 섬, 목요일	〈외래어 표기법 제4장 제3절〉 〈삭제〉



현행	개정
제2항 바다는 ‘해(海)’로 통일한다. 보기 홍해, 발트해, 아라비아해	제1항 바다는 ‘해(海)’로 통일한다. 보기 홍해, 발트해, 아라비아해
제3항 우리 나라를 제외하고 섬은 모두 ‘섬’으로 통일한다. 보기 타이완 섬, 코르시카 섬 (우리 나라: 제주도, 울릉도)	제2항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섬은 모두 ‘섬’으로 통일한다. 보기 타이완섬, 코르시카섬 (우리 나라: 제주도, 울릉도)
제4항 한자 사용 지역(일본, 중국)의 지명이 하나의 한자로 되어 있을 경우, ‘강’, ‘산’, ‘호’, ‘섬’ 등은 겹쳐 적는다. 보기 온타케 산(御岳), 주장 강(珠江), 도시마 섬(利島), 하야카와 강(早川), 위산 산(玉山)	제3항 한자 사용 지역(일본, 중국)의 지명이 하나의 한자로 되어 있을 경우, ‘강’, ‘산’, ‘호’, ‘섬’ 등은 겹쳐 적는다. 보기 온타케산(御岳), 주장강(珠江), 도시마섬(利島), 하야카와강(早川), 위산산(玉山)
제5항 지명이 산맥, 산, 강 등의 뜻이 들어 있는 것은 ‘산맥’, ‘산’, ‘강’ 등을 겹쳐 적는다. 보기 Rio Grande 리오그란데 강 Monte Rosa 몬테로사 산 Mont Blanc 몽블랑 산 Sierra Madre 시에라마드레 산맥	제4항 지명이 산맥, 산, 강 등의 뜻이 들어 있는 것은 ‘산맥’, ‘산’, ‘강’ 등을 겹쳐 적는다. 보기 Rio Grande 리오그란데강 Monte Rosa 몬테로사산 Mont Blanc 몽블랑산 Sierra Madre 시에라마드레산맥
〈산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장 제3절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내용을 요약하면, 그동안 ‘해, 섬, 강, 산, 산맥, 고원, 인, 족, 어……’ 등이 외래어에 붙을 때에는 띄어 쓰고 고유어나 한자어에 붙을 때에는 붙여 써 왔는데, 개정안에서 그 내용을 삭제함에 따라 ‘해, 섬, 강, 산, 산맥, 고원, 인, 족, 어……’ 등의 앞에 어떤 말이 오느냐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띄어쓰기를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국립국어원에서 공정한 『외래어 표기법』 일부 개정에 따른 띄어쓰기 변경 내용 안내에 따르면, 위 개정에 따라 띄어쓰기가 변경되는 말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즉, 아래 제시된 말들은 이제 앞에 오는 말의 어종에 관계없이 모두 앞말에 붙여 쓰게 됩니다.

개(街), 강(江), 고원(高原), 곳(串), 관(關), 궁(宮), 만(灣), 반도(半島), 부(府), 새(寺), 산(山), 산맥(山脈), 섬, 성(城), 성(省), 어(語), 왕(王), 요(窯), 인(人), 족(族), 주(州), 주(洲), 평야(平野), 해(海), 현(縣), 호(湖) (총 26항목)

다만, ‘도버 해협/대한 해협’과 같이 개정 전에도 앞에 오는 말의 어종에 관계없이 띄어쓰기가 일정하던 어휘는 개정 후에도 띄어쓰기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관하여 살펴볼까요? 위 규정은 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 제2장 표기 일람, 제3장 표기상의 유의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제2장 표기 일람에서는 한글 모음과 자음을 로마자로 어떻게 적는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 모음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

1. 단모음

ㅏ	ㅓ	ㅗ	ㅜ	ㅡ	ㅣ	ㅐ	ㅔ	ㅚ	ㅟ
a	eo	o	u	eu	i	ae	e	oe	wi

2. 이중 모음

ㅑ	ㅕ	ㅛ	ㅠ	ㅓ	ㅖ	ㅗ	ㅘ	ㅙ	ㅞ	ㅟ
ya	yeo	yo	yu	yae	ye	wa	wae	wo	we	ui

제2항 자음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

1. 파열음

ㄱ	ㅋ	ㆁ	ㄷ	ㅌ	ㅌ	ㅍ	ㅍ	ㅍ
g, k	kk	k	d, t	tt	t	b, p	pp	p

2. 파찰음

ㅈ	ㅊ	ㅊ
j	jj	ch

3. 마찰음

ㅅ	ㅆ	ㅎ
s	ss	h

4. 비음

ㄴ	ㅁ	ㅇ
n	m	ng

5. 유음

ㄹ
r, l

본인 혹은 자녀들의 여권을 만들기 위해 구청을 방문하여 영문 성명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여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십수년 전 여권을 최초로 만들던 때 그런 고민을 했었던 추억이 떠오릅니다. 최근에는 구청에서 로마자 표기법을 비치해 두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마도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른 내용으로 비치해 둔 것이라고 짐작해 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한 어문 규정들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예규·고시, <http://www.mcst.go.kr/>)와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사전·국어 지식 → 어문 규정 일러두기 이하, <http://www.korean.go.kr/>)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2017. 3. 21. 개정되어 2017. 9. 22.부터 시행되는 국어기본법 제14조는 ‘공문서의 작성’이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 가족들이 날마다 작성하는 다양한 종류의 많은 공문서, 법원의 얼굴과 다름없다는 생각으로,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어문규범에 맞추어 세심히 작성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서로의 이해와 약속으로 만들어진 법의 의미를 배워갑니다”

나사렛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대법원 견학

글_박주광 · 사진_안정진



지난 9월 12일 ‘대한민국 법원의 날’ 오픈코트 주간을 맞이하여 충남 천안에 위치한 나사렛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의 학생들과 인솔교사들이 대법원을 방문했다.

이들 학생 중에는 청각과 시각, 신체 일부가 불편한 학생들이 함께했다. 법원전시관과 대법정, 소법정을 오가면서 학생들은 견학 실무관의 설명을 수화로 전달받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학우를 기다려주는 등 서로 도와가며 법원에 대한 설명을 경청했다.

법원전시관에서는 법의 기원, 우리나라 법의 역사, 조선시대 판결의 기록, 현재 법원에서 이뤄지는 재판의 구성과 설명,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차이점, 역대 대법관, 대법원장 리스트, 복법의 변천사, 법관이 되는 길 등을 배웠다. 이날 판사와의 대화에서는 최용영 판사가 진행을 맡았다. 최용영 판사는 대법원의 역할, 판사들의 활동과 함께 판사라는 직업의 어려움과 보람 등을 설명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 시간에 학생들은 법정체험실에 비치된 법전을 보고 매년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는데 그때마다 법전을 매번 새로 만드는지 질문했다. 이에 최용영 판사는 “매년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법안은 부분적인 개정판이 발간되어 판사들이 이를 습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학생들은 미국 법과 한국 법의 차이, 음주 후 범죄에 대한 감형의 이유, 최근 공론화되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법률 제정의 진행,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한 판사들의 각오 등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특히 장애인들의 시각에서 느낀 대법원 시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있었다. 최용영 판사는 “대법원에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근무하고 있고, 이들이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개선되고 신설돼야 할 시설이 많다고 본다”며 “오늘 방문이 끝나면 대법원 게시판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달라. 법원 방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 갈 것이다”라고 제안과 더불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날 수화를 맡은 한준영(4학년 재학, 남) 학생은 “매체에서 본 것보다 대법원과 대법정의 웅장함에 놀랐다. 특히 판사님과 실제로 대화하며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어서 신기했다. 수화 통역으로 법률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진로를 찾고 있는데, 차후 법원에서 다시 인사할 기회를 만들겠다”며 견학에 대한 느낌과 개인적인 포부를 밝혔다. ☐



어린이 소식지

2017 OCTOBER

<http://we.scourt.go.kr/kids/board/BoardListAction.work?gubun=951>

| NO. 05

01

골든벨은 내가 올려주마~



지난 8월 13일 일요일 대법원에서 KBS 프로그램 '도전 골든벨'을 촬영했습니다.

대법원 어린이기자단인 김휘성 기자는 그 현장에서 함께 하며 최후의 1인이 남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현장은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 방송 관계자분들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학생들의 모습을 조용히 숨죽이며 지켜보았고 매우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대법원에서 진행되는 이번 '도전 골든벨'에서는 판사님들도 학생들과 섞여 함께 문제 풀이를 해나가셨습니다. 아쉽게도 떨어지셨지만 남은 학생들에게 수고 많았다고 하시며 골든벨을 놓쳐도 속상해하지 말라는 소중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 차가 많이 나는 고등학생들과 함께해 재미있고 보람된 시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최후의 1인은 박연주 학생이었습니다. 비록 골든벨을 올리지는 못했지만 마지막까지 차분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멋졌습니다.

박연주 학생은 얼떨떨해하며 좋으면서도 당황스럽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장래희망은 기자라고 합니다.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쌓기 위해 골든벨에 도전했는데, 가족과 친구들에게 골든벨을 올리지 못해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도전 골든벨'이 법원에서 진행된 만큼 법에 대해 더 관심을 두게 된 계기가 되었다며 법률 공부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법원에서 진행되어 많은 문제가 법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많은 학생이 법에 대해 다양한 상식을 갖고 있어 놀랐습니다.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법에 대한 상식을 더 알리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발전해나가길 바랍니다.



목원초 4학년
김휘성

02



‘소년법’ 개정이 필요할까요?



지난 9월 1일 부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청와대에 ‘소년법 폐지’를 청원하는 서명자가 27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강원도와 충남 아산 등에서 유사한 폭행 사건들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네티즌들은 어린 학생들이 나이를 악용한다며 가해자가 아무리 어리더라도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제 나이가 만 12세가 됩니다. 그런데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를 낮추면 제가 죄를 지었다고 어른들처럼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무섭고 끔찍한 생각이 들어 우리 반 친구들과 여기에 대해 의견을 나눠 보았습니다.

우리반은 5학년이고 남자 16명, 여자 14명 모두 30명입니다.

1) 우선 소년법의 개정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① 찬성 - 30 ② 반대 - 0

2) 찬성한다면 형사미성년자의 기준 연령을 몇 살로 바꾸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 | | |
|---------------|--------------|
| ① 만 13세 - 15명 | ② 만 14세 - 7명 |
| ③ 만 15세 - 8명 | ④ 만 16세 - 0명 |
| ⑤ 만 17세 - 0명 | |

3)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 ① 만 13세 - 중학생이 되면 폭행 사건 등 큰 죄를 지을 수 있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처벌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② 만 14세 - 청소년 범죄를 살펴보면 중학교 2학년 정도에 일명 중2병으로 범죄를 많이 저지르기 때문이다.

③ 만 15세 - 고등학생이 되면 더 큰 범죄를 저지러 수 있어서 중3 때부터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내려 더 큰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4) 청소년 폭행 사건들을 보고 느낀 점

- 나도 폭행을 당할까 봐 두렵다.
- 어린 학생들이 폭행을 하는 것이 충격적이다.
- 왕따를 시키면 안 된다.
- 나는 절대로 폭행을 하지 않겠다.
- 소년법을 악용해서는 안 되고 소년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 늦은 시간에 돌아다녀서는 안 된다.

‘소년법’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놀란 점은 친구들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담임선생님의 설명과 친구들과의 토의로 우리 반 친구들은 ‘소년법’의 개정이 필요할 뿐 아니라, 이런 폭행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남을 장난으로라도 괴롭히지 않고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는 아이들을 본다면 말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토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폭행하지 마라’ ‘왕따시키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반처럼 ‘소년법’이나 ‘교내 문제’를 학교에서 토론했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찾고 스스로 반성도 하고 마음속으로 다짐도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원초 5학년
권민준

미래 배심원인 국민들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소개합니다

2017년 법원전시관 기획전시「국민참여재판」개막식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다양한 가치관과 사고를 재판에 반영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투명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덕분에 2016년 12월까지 1,972건의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고 총 1만 5,751명의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했다.

이에 법원전시관에서는 미래 배심원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알리는 기획전시를 마련했다.

글_이경희 · 사진_장병국

국민참여재판 10년차를 기념하는 기획전시

지난 9월 14일, 법원전시관에서는 새로운 기획전시를 공개하는 개막식이 열렸다. 이날 개막식은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외·내부인사들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행정처장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국민참여재판은 시행 초기의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형사재판의 한 형태로 정착해 국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데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어 국민참여재판 활성화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 전시가 바람직한 국민참여재판을 함께 만들어가는 데 일조하길 바랍니다.”

관람객들의 이해를 높이는 참신한 전시

공식적인 개막식이 마무리된 후, 박효정 학예사의 전시 설명이 이어졌다.

“국민참여재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전시에 투명한 소재를 사용해 디자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생생한 인터뷰 영상을 볼 수 있고, 바로 옆에는 국민참여재판의 처리 건수, 범죄 유형별·연령별·성별 구성이 숫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배심원 만족도 조사 결과입니다.” 무려 96%에 이르는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며 참석자들은 기분 좋게 고개를 끄덕였다. 기획전시실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코너는 배심원 체험 부스였다. 이곳은 관람객이 직접 배심원이 되어 가상의 사건에 대해 터치화면으로 피고인의 유무죄와 양형 의견을 낼 수 있는 멀티미디어 체험공간이었다.

기획전시실을 나오면 ‘국민참여재판은 ○○○이다’라는 관람 소감 및 생각을 남기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그곳에는 ‘국민참여재판은 하모니’, ‘국민참여재판은 보통사람’, ‘국민참여재판은 민심’이라는 의견이 적혀 있었다. 이것은 실제 배심원들이 작성한 것이라고 한다.

앞으로도 보통사람의 민심을 반영하는 하모니로 지속하길 바란다. ㉠

MINI INTERVIEW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겠습니다”

박효정
학예사

법원행정처 공보관실



법원전시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판사와 국민참여재판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대한민국 판사의 길’이라는 기획전시를 열었고 이번에 국민참여재판을 전시로 기획하게 되었어요.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는 상설전시실에서 이미 소개되고 있었지만 간략하게 설명되어 그동안 안타까웠는데요. 이번 전시로 국민참여재판이 국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사람들에게 국민참여재판의 존재는 익숙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사실 관람객들도 모두 미래 배심원입니다. 전시를 통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사법 참여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기획전시로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주제를 잘 택한 것 같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국민이 법원에 대해 느끼던 거리감이 줄었습니다”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박명신
실무관

저는 실제 국민참여재판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해 직접 배심원들을 현장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되어 통지서를 받고 오시면, 긴장도 많이 하시고 법원이라는 장소에 대해 중압감을 많이 느끼십니다. 하지만 막상 배심원 선정 절차를 거쳐 재판 과정을 지켜보시고 나면 법원에 대해 친근하게 느끼시고 편하게 생각해주시더라고요.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판사님들도 일반적인 재판에서와는 다르게 더 쉬운 단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하시기도 하고 부드럽게 진행하시거든요.

올해 봄에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해주신 분이 자신의 아버지가 배심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참여재판 수기공모전에서 상도 받으셨다고 하시더군요. 부녀가 모두 배심원으로 외주신 거죠.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한 지 10년이 지나니 이런 에피소드도 있네요.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많이 나오도록 국민참여재판이 더욱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의 문턱에 서서

Autumn

연제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실무관

법원 사람들의 새로운 스타일
도전과 삶의 이야기를 담은
코너로, 헤어부터 의상까지 스타일
변신의 기회를 드립니다.



봄은 여자의 계절,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고 했던가. 가을 옷을 차려 입은 연제윤 실무관은 금세 차분한 분위기를 물씬 풍기며 카메라 앞에 섰다. 나들이나 여행 계획이 많아 부쩍 옷에 신경 쓸 일이 많아지는 가을, 그의 스타일링을 따라 가을 분위기를 내보는 건 어떨까? 글_강나은·사진_이성원



Style
Change



취향은 차분하게, 움직임은 활발하게

평소에 사진 찍는 것도, 다른 사람 앞에 나서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연제윤 실무관이 스타일링 Q를 찾은 이유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기 위해서다. 스타일링에 관심은 많지만 자신이 예뻐 보여서 산 옷은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았던 경험이 여러 번이다. 게다가 이제 곧 가을이 오니 입을 옷에 대한 고민은 더욱 깊어졌다.

“같이 일하는 친한 후배가 스타일링 Q를 추천해주면서 스타일링 받은 대로 스타일링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재판이 있을 때를 제외한 출근 복장은 그냥 평범하게 셔츠에 바지 차림이고, 친구들을 만날 때도 면티에 면바지를 입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평범하게 입고 다니는 편이죠.” 이러한 고민을 알아차린 장빛나 스타일리스트는 무난하

면서도 색감이 조화로운 옷들로 그의 스타일을 완성시켰다. 여기에 간단한 메이크업과 헤어 스타일링까지 마치고 카메라 앞에 서자 낯선 그가 렌즈에 비쳤다. 스태프들의 ‘발라드 가수 같다’는 말에 그는 ‘실제로 발라드를 좋아한다’며 웃었다.

“나이 들면서 점점 시끄러운 음악보다는 조용한 음악이 좋아지더라고요.”

반면 몸은 나이가 들면서 더욱 부지런해졌다. 이전까지는 그리 즐기지 않았던 운동을 시작해 법원 직원들과 함께 퇴근 후에 풋살과 탁구를 하고 있다. 지금 근무하고 있는 김천에서는 법원 식구들만으로는 인원이 부족해 바로 옆 검찰청 직원들과 팀을 나누어 경기를 하기도 한다.

“풋살이 미니 축구 같은 느낌인데요. 생각보다 운동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앉아서 일을 하다 보니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꾸준히 하고 있어요.”

스스로도 운동을 잘한다는 생각은 못 했지만 법원 풋살 팀에서는 ‘생각보다 잘 된다’며 칭찬일색이다. 또한 관사에서 함께 생활하는 두 법원 동료와도 잘 지내고 있다.

“셋 다 타지에서 와서 저녁도 같이 먹고, TV도 같이 보는 경우가 많아요. 같이 지내보니 불편한 점보다는 편한 점이 훨씬 많더라고요.”

가죽 재킷에 핏칭, 비니에 도전하다

현재 연제운 실무관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민사 단독에서 근무하고 있다. 2014년 3월에 입사해 벌써 3년차가 된 그는 ‘법원 업무의 꽃은 민사’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

“지엽적인 업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일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부서다보니 책을 찾아보기도 하면서 일을 더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어서 좋아요. 아무래도 업무 자체가 독립적이라서 만족도가 높아요.”

게다가 민원인이 많은 편이 아니라 좀 더 몰입해서 스스로 일처리를 할 수 있으니 그에게는 딱 맞는 부서다. 그가 하는 업무는 주로 민사 재판을 보조하는 일로, 민사 재판을 진행하는 데 있어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를 준비하거나 재판에 참여해서 판사를 보조하는 일을 맡는다.

대구로 오기 직전에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서 근무하며 내공을 쌓았다. 늘 민원인들을 대하는 자리에 있다 보니 힘들 때도 있었지만 보람도 컸다.

“생각보다 법원의 업무 처리에 대해 불신을 갖고 계신 민원인분들이 많으셔서 자세히 설명하다보면 지치다가도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고나면 뿌듯해져요. 지금도 민원인들이 있긴 하지만 그 수가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덜해요.”

법원에서 근무할수록 느껴지는 것은 평소의 꼼꼼했던 성격이 더욱 꼼꼼해진다는 점이다. 서류를 처리하면서 잘못 처리한 점은 없는지 살피는 일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처음 입사했을 때는 가까스로 처리했던 업무량을 어느새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을 만큼 속도도 빨라졌다. 스타일링 Q를 하면서 그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시도해본 적이 없었던 스타일에도 도전했다. 가죽 재킷에 청바지를 입고, 비니도 썼다. 이전 스타일링이 발라드 가수였다면 이번에는 아이돌로 콘셉트가 바뀐 것. 의외로 이전 스타일보다도 어울려 놀라움을 자아냈다.

올해 유난히도 가을 날들이며, 여행계획이 많다는 연제운 실무관은 이제 여행지마다 색다른 스타일링과 매력으로 가을을 온전히 즐길 준비를 끝냈다. ☺



○○

올해 유난히도 가을 나들이며,
여행계획이 많다는 연제윤 실무관은
이제 여행지마다 색다른 스타일링과
매력으로 가을을 온전히 즐길
준비를 끝냈다. ○○

연제윤님을 위한 스타일링 TIP

Fashion

첫 번째, 화려하지 않게 톤다운 된 컬러의 단디한 스타일입니다. 얇은 체크코트에 톤다운 된 오렌지컬러의 니트는 감성자수는 높이고, 코트의 캐주얼한 버튼은 전체적인 분위기를 무겁지 않게 잡아줍니다. 여기에 어두운 슬랙스 팬츠로 깔끔하게 마무리! 이런 스타일링은 평소 출근복장으로도 무난하겠죠?

두 번째, 가을에는 역시 버버리코트, 더블버튼의 클래식한 버버리코트는 길이가 너무 길지 않아야 더 키가 커 보입니다. 이너는 톤다운 된 카키컬러로 단디한 분위기를 주고, 체크패턴의 슬랙스를 더해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패턴과 색 조합이 깔끔하고 센스 있어 보입니다.

세 번째, 캐주얼하면서도 남성스러운 스타일로, 가죽 재킷에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믹스매치하고 데님 진을 입어주면 더욱 어려 보이는데요. 그레이컬러의 비니 또한 나이보다 어려보이는 비법이랍니다.

Hair & Make up

헤어가 길어 이번 촬영에서는 살짝 걸을 넣어서 연출했지만 옆머리를 짧게 자르고, 뒷머리를 레이어링 컷트를 해주면 더욱 샤프한 느낌으로 스타일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피부는 깔끔하게 피부 톤을 잡아주었고 과하지 않은 윤곽 셰딩으로 얼굴을 작아보이게 했습니다.

tip

단디한 스타일도 좋지만 캐주얼한 스타일도 소화를 굉장히 잘 해주셨는데요. 워낙 깔끔하고 무난한 스타일이시다보니 강한 느낌을 주는 캐주얼한 스타일을 다양하게 연출해주시면 더욱 눈에 띄실 것 같아요. 이때는 액세서리나 소품을 활용하면 더욱 스타일리시해 보일 수 있습니다.

- 장빛나 스타일리스트 -

〈인간시장〉의 작가, 이제 ‘사랑’을 말하다

소설가 김홍신



억압의 시절, 잠시나마 국민의 숨통을 틔워주며 부패한 사회에 통쾌한 일갈을 날린 소설을 기억하는가. 1980년대 출간된 장편소설 〈인간시장〉이다. 이 소설로 혜성같이 등장한 이가 김홍신 작가다. 그동안 사회, 역사적 이야기를 써온 김홍신 작가는 2017년 현재, ‘사랑 이야기’를 들고 왔다. 햇살이 따사로운 어느 초가를 오후에 서울 서초동 집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글_허주희 · 사진_장병국

Q. 최근 소설 〈바람으로 그린 그림〉을 출간했습니다.

이 소설은 사랑 이야기라 들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인간의 본질이자 영원한 숙제입니다. 해독제도 없고 요약도 없고,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늘 변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 이야기는 인류 역사상 문자가 생성된 이래 끊임없이 써지고 있습니다. 〈바람으로 그린 그림〉이 나오고 여러 사람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제목부터 기가 막히다. 제목을 어떻게 정했냐’는 말도 들었습니다. 제 책상 앞에 ‘사랑과 용서로 짠 그물’에는 바람도 걸린다’는 문장을 붙여놓고 소설을 썼습니다. 바람은 그물에 걸리지 않는 ‘자유로움’을 상징합니다. 이 소설의 주제가 사랑과 용서입니다. 바람은 그물에도 걸리지 않을 정도로 자유롭지만, ‘사랑과 용서로 짠 그물’에는 바람도 걸려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Q. 그동안 사회적, 역사적 메시지를 담은 이야기를 많이 썼는데요, 최근의 작품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에 주목하게 된 이유가 있는지요.

사실 제가 소설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전에 역사 소설 〈대발해〉를 쓰고 나서 심하게 앓은 이후에 소설이 써지지 않는 거예요. 소설을 쓰다가 몸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컸어요. 그러다가 ‘내가 할 수 있는 작업이 뭔가’를 생각했어요. ‘사랑 이야기라면 그래도 좀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나 자신을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어렵게 썼습니다. 쓰는 데

만 2년이 걸렸습니다. 결국 2015년에 ‘단 한 번의 사랑’을 냈고, 이걸 쓰고 나니 또 뭔가 사랑 이야기를 쓸 수 있겠구나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바람으로 그린 그림〉을 출간했습니다.

Q. 1980년대 소설 〈인간시장〉으로 국내 첫 밀리언셀러를 기록하며 명성을 얻었습니다. 출세작 〈인간시장〉은 지금까지 작가님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요?

〈인간시장〉은 1981년 9월 1일에 출간되었습니다. 제 소설로는 4번째입니다. 당시는 계엄 시절이었고 신문, 방송, 잡지, 책 등 모든 매체의 글은 계엄사에서 검열을 받아야만 했어요. 그런 서술 퍼런 시절에 〈인간시장〉이 나왔고 출간 한 달 반 만에 10만 부를 돌파했어요. 출판사 사장 이 당시 신형으로 나온 포니2 승용차를 사줬어요. 그리고 2년 뒤에 판매 100만 부를 돌파했어요. 〈인간시장〉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밀리언셀러로 기록됐어요. 저로서는 굉장한 영광이죠.

당시 〈인간시장〉도 수없이 검열을 당했어요. 자기들 입맛대로 쓱다쓱다 잘라냈죠. 그래서 사실 이 책은 아픔이 있어요. 또 당시 저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죽이겠다는 공갈, 협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갈 정도로 가족이 아주 힘들었지요. 군사계엄 치하에서 그 시절은 모든 국민이 울분에 싸여 있을 때여서 사람들이 더 관심을 두고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사랑 이야기라면 그래도 좀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나 자신을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어렵게 썼습니다. 쓰는 데만 2년이 걸렸습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내가 살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육신도 살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 정신,

내 영혼이 살아 있다는 것이죠.



Q. 1976년 등단 이후 어느새 등단 41주년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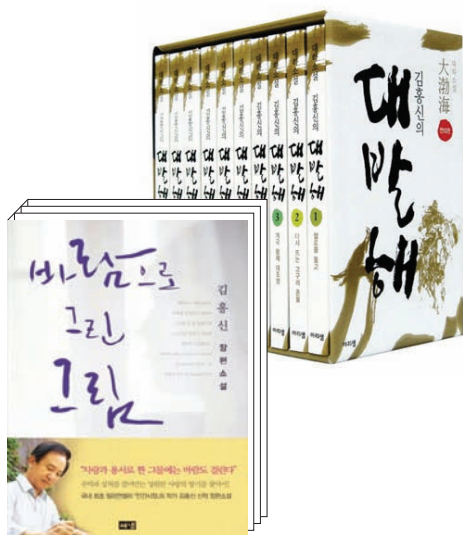
감회가 남다를 듯합니다.

제가 스물아홉 살에 등단했는데, 동년배에 비해 등단이 많이 늦었어요. 사실 요즘 글쟁이로 산다는 것이 아주 힘들죠. 글쟁이가 밥을 못 먹는 시대예요. 하지만 다시 태어나도 저는 글쟁이로 살아갈 겁니다. 어느 강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죽는 날까지 머리맡에 원고지를 두고 손에 만년필을 쥐고 살겠다”라고요. 누군가가 “언제 글이 제일 잘 써지냐”고 물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이 가장 잘 써질 때는 마감 전날, 밤늦게라고요. 그때까지 무엇을 쓸까 하고 계속 고민하다가 막판에 터지는 거예요. 글이라는 게 가만히 있다가 저절로 써지는 게 아닌 거죠.”

Q. 원고를 만년필로 쓰는데, 만년필을 고수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컴퓨터 자판 치는 것을 못 배웠어요. 사실 아직은 배울 마음이 없고, 손으로 쓰는 것이 내 감성을 자극합니다. 습관적으로 계속 손으로 쓰게 돼요. 제자들이 편하게 쓰도록 자판 치는 법을 가르쳐준다고 했지만, 글썄요, 더 나이를 먹으면 하게 될지 모르지만 아직은 만년필로 쓰는 게 좋아요. 꽤 오래전 명절날 최인호(소설가, 현재는 고인) 형과 함께 이어령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그때 선생님께서 “탁탁 자판 치는 것이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 같다. 너희도 컴퓨터로 글을 써라” 해서 둘이 “네” 하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둘이 밖에 나와서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손으로 쓰자” 했죠. 제가 10여 년 전 소설 〈대발해〉를 원고지로 1만 2000장을 썼어요. 하루에 12시간 이상 글을 쓰니 팔에 마비가 오고, 3년간 두문불출해 햇빛을 못 보니 햇빛 알레르기가 생기고, 허리통증에 소화불량, 요로결석, 또 머리털이 빠지는 등 엄청난 고통을 겪었죠. 그래서 이후 소설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담배를 끊었기에 지금 살아 있지 그때 담배까지 피웠으면 저는 아마 죽었을 겁니다.



Q. 어느새 칠순입니다. 지금도 더 쓰고 싶은 글이 있는지요.

이번에 〈바람으로 그린 그림〉을 고은 선생님이 읽고서 전화를 주셨어요. 책을 읽고 덮자마자 전화를 한 것이죠. “정말 환상이다. 더 좋은 작품을 기대한다”고 하셨습니다. 대하역사소설 〈대발해〉를 출간했을 때는 시인 이근배 선생이 책을 읽고 “이거는 노벨문학상 감이다”라고 말해주었어요. 이러한 이야기들 때문에 자꾸 글을 쓰게 됩니다. 칭찬을 받을수록 더 좋은 작품을 쓰고 싶다는 욕구가 커집니다. 앞으로 우리 민족의 장엄한 ‘고대사’를 써보고 싶고, 사랑 이야기도 계속 써나갈 것입니다.

Q. 끊임없이 글을 쓰게 하는 힘은 무엇인가요.

글을 쓴다는 것은 내가 살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육신도 살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 정신, 내 영혼이 살아 있다는 것이죠. 내 영혼이 살아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행위가 글 쓰는 것이예요. 실상, 경제적 가치로 보면 글 말고 다른 것을 해야 합니다. 밥벌이가 안 되는 작업이니까요. 그럼에도 여기에 매달리는 것은 내가 살아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Q. 우리 사회에서 법과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상식과 법, 원칙, 정의, 진리, 이런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인간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살기 때문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것은 ‘공정’입니다. ‘공정 사회’가 되려면 이러한 원칙과 단어 자체가 존중받아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의 공정성이 없다면 힘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겠어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이른바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긴 시간 이어졌어요. 우리는 산업화, 민주화에 성공했지만, 아직 공정하고 청렴한 국가라고는 할 수 없죠. 앞으로 우리나라가 각 분야에 공정한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고, 무엇보다 인성을 갖춘 이들이 일하며, 이런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법조계뿐 아니라 공기업, 경찰, 군, 재계, 교수 사회, 의사 사회 등 힘 있고 가진 집단이 먼저 ‘휴머니즘’을 가져야 합니다. ㉠



외국인들은 우리를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을까. 이만큼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도 없다. 최근 들어 〈택시운전사〉나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같이 외국인들의 시선을 담은 콘텐츠들이 유독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여기에는 과거와 다른 어떤 변화가 담겨 있을까. 글_정덕현(대중문화 칼럼니스트)

무엇이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 열광하게 했나

최근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화제다.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인 자신의 고향 친구들을 초청해 여행을 하는 간단한 콘셉트지만 이에 대한 반응은 뜨겁다. 그것은 외국인의 시선이 우리가 그저 지나치던 우리의 풍경들이나 문화를 새삼 새롭게 보게 해주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비정상회담〉으로 익숙한 독일 친구 다니엘이 초대한 독일 친구들의 시선을 따라가 보자. 호텔 화장실에 있는 비데가 신기하고, 터치만 하면 열리는 자동문이 그들에게는 놀라운 일이다. 또 고깃집에 가면 연기를 빨아들이는 흡입기(?)가 그들은 그토록 신기할 수가 없다. 물론 이런 이문화에 기인한 신기함만 보이는 건 아니다. 뭐든 책을 먼저 들여다보고 계획을 꼼꼼히 짜며 그 계획에서

살짝만 어긋나도 자존심 상해하는 독일인들의 남다른 감성 또한 여행에서 포착된다.

이들의 여행은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기도 한다. 서울 한복판에 떡하니 존재하지만, 우리가 그다지 그 의미를 되새기지는 않았던 서대문형무소를 이들이 찾아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의 면면을 새삼 느끼게 하는 대목, 판문점을 찾아가 통일된 독일과 비교하며 우리네 분단 상황을 새삼 생각하게 하는 대목 등이 그렇다.

이들의 여행은 여러 가지 관점을 제시하지만,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타자에 대한 남다른 감수성을 드러낸다는 점이다. 외국인이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신기하고, 또 우리 역시 그들의 생각과 행동이 신기하다.

이미 징후를 보였던 <윤식당>부터 최근 <택시운전사>까지

사실 이 프로그램에서 먼저 느껴지는 건 우리가 유독 외국인들의 시선에 민감해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윤식당> 같이 해외에서 한식집을 오픈해 겪는 일상을 담은 프로그램에서 시청자들이 유독 주목했던 건 외국인들의 반응이었다. 발리의 외딴 섬에 오픈한 한식집에서 내놓은 불고기와 라면, 치킨 같은 우리 음식들이 과연 외국인들에게는 어떨까 하는 호기심. 그들이 보이는 의외의 좋은 반응들은 마치 우리네 한식이 칭찬받은 듯한 기분 좋은 느낌을 주었다. 또 우리와는 다른 그들의 관점이나 시점은 예상치 못한 재미를 만들었다. 우리와는 다른 그들의 생각을 들여다보고 공감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흥미로움 때문이다. 이런 외국인의 관점에 대한 관심은 이미 <비정상회담> 같은 프로그램에서 외국인 스타가 탄생했던 것으로 일찌감치 확인할 수 있었다. 사실 지금 방영되고 있는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는 <비정상회담>이 발굴해낸 외국인 스타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대중은 <비정상회담>을 통해 각국의 서로 다른 문화 차이를 알아보는 재미를 경험한 바 있다.

최근 천만 관객을 훌쩍 넘긴 영화 <택시운전사>의 흥행 성공에도 이러한 외국인의 관점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물론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 당시의 택시운전사라는

서민적 시각으로 접근한 방식이 준 공감대가 컸지만, 거기에 드리워진 독일 기자의 시선 또한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무시할 수 없다.

외국인의 시선과 타자에 대한

감수성을 요구하는 사회

이것은 대외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네 산업 환경에서 잘사는 나라 사람들의 반응이 우리의 생존과 연결되어 있었기에 생겨난 습성일 수 있다. 외국인들의 시선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때로는 타자에 대한 예민한 감수성 이해를 위한 것이라기도 하는 ‘인정 욕구’가 더 큰 경우들이 있다.

하지만 외국인 같은 타자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지는 것은 지금처럼 많은 성별, 세대, 이념, 지역 갈등 등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절실한 부분이 있다. 외국인만이 아니라 내가 아닌 타자 전체에 대한 남다른 감수성의 변화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당면한 여혐과 남혐으로 대변되는 젠더 갈등 문제나 청춘들을 잉여로, 나이 든 세대를 꼰대로 치부하는 세대 갈등 문제 등은 사실상 그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타자에 대한 감수성이 결여된 데서 비롯된 일일 수 있다. 물론 이 모든 갈등을 근본적으로 없애려면 시스템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지나친 긴장 구도로 흘러가는 갈등 상황을 일단 진정시키고 해법을 찾아 나가는 데에는 저들의 상황을 먼저 예민하게 읽어내는 감수성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외국인의 시선에 대한 관심에서 확장해 타자의 관점에 대한 관심으로 나아갈 때이다. ㉠



가을철 건강백서

무더위가 한풀 꺾이더니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가을이다.
덥다가 추워지는 날씨의 변덕으로 이맘때면 우리 몸도
적응하느라 지칠 때가 많다.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
가을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질환과 예방법을 소개한다.

글_편집부

AUTUMN





환절기 감기 주의

계절이 바뀌는 무렵이면 으레 찾아오는 질환이 감기다. 일교차가 심한 틈을 타고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침투한다. 특히 기관지 점막이 건조하면 감기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쉬우므로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면 좋다. 실내 적정 습도는 40~60%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습도가 이보다 낮아 건조할 경우 알레르기 비염, 기관지염 등에 걸릴 수 있다. 야외 활동 시에는 체온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게 겹옷을 준비하고,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을 즐겨 먹자. 특히 비타민 D는 환절기 면역력 강화에 좋다. 햇볕을 쬐면 비타민 D가 많이 생성되므로 하루 최소 20분 이상은 쬐도록 하자.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발을 깨끗이 씻는 등 개인 위생 관리에도 철저히 해야 한다. 손만 깨끗이 씻어도 감기와 독감 등 바이러스 질환을 90% 이상 예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독감 예방접종

9월부터 본격적인 독감 예방접종 시기다. 만 75세 이상은 9월 26일부터, 만 65세 이상은 10월 12일부터 11월 15일까지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무료 접종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만성질환자, 55세 이상 고령자, 12세 이하 어린이, 면역 저하 우려자 등은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 독감 백신 종류 중 4가백신은 주요 독감 바이러스 가운데 A형 2종, B형 2종을 예방해준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3가보다 4가백신 접종을 권장하지만 국내에서 무료로 접종할 수 있는 것은 3가백신뿐이다. 독감 예방접종을 하면서 폐렴과 대상포진 백신을 같이 맞으면 그 효과가 크다.

가을철 야외 활동 시 주의할 점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산과 들로 나가는 야외 활동도 부쩍 늘어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질환이 야생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이다. 올해는 같은 기간 전국 단위 기준으로 전년 대비(8월 31일 기준) 환자와 사망자가 각각 121%, 244% 증가해 더 주의가 요구된다. 쯔쯔가무시증은 오리엔티아

쯔쯔가무시균에 감염된 털진드기 유충이 사람을 물어 균을 전파하면서 발생한다. 잠복기는 일반적으로 1~3주이며 갑자기 시작되는 오한, 발열, 두통에 이어 기침, 구토, 근육통, 복통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진드기 매개 바이러스성 감염병이다.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면 1~2주 이내에 고열이 나고 구토나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이 나타난다. 현재 예방백신이 없어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풀밭에 앉거나 눕는 것을 되도록 피하고 야외 활동 시 꼭 긴 소매 옷을 착용하자.

가을 탈모 예방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자 ‘탈모의 계절’이라는 말이 있다. 우수수 떨어지는 낙엽처럼 머리카락도 ‘쑹쑹’ 빠져 고민이 깊어지는 남성들이 많다. 전문가들은 “가을철의 큰 일교차는 두피의 유분과 수분의 균형을 무너뜨려 각질을 유발하고, 여름철에 소홀히 했던 두피 관리도 탈모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말한다. 가을철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숙면과 심리적인 안정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탈모를 촉진하는 기름진 음식이나 인스턴트 음식 대신 과일과 채소,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또 자신의 두피 상태에 맞는 샴푸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머리는 하루에 한 번 감는 것이 좋다. 머리를 자주 감으면 탈모가 촉진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감지 않으면 노폐물 등이 두피의 모공을 막아 더 심한 탈모를 일으킬 수 있다. ㉠



COURT NEWS

부산서부지원 개원식 시행



부산서부지원(지원장 김동윤)은 2017. 9. 1.(금) 개원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개원식을 시작으로 테이프 커팅, 현판제막, 기념식수 및 표지석 제막, 청사 순시, 오찬 순으로 오전 10:00시부터 오후 1:30분까지 격조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대회의실에서 거행된 개원식에는 김신 대법관, 부산고등법원장, 법원도서관장, 부산지방법원장, 부산가정법원장,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 등 16명의 법원 내빈들 및 유기준·김도읍 국회의원,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각 관할 구청장 등 37여 명의 외부인들이 참석하였으며, 아울러 인근 지역 아파트 주민들 및 자원봉사단 회원들 약 30명이 함께하였습니다.

이광만 부산지방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부지원 개원을 계기로 부산시민과 더욱더 소통하면서 지혜를 모아 시민이 요구하고 기대하는 법원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신 대법관은 “부산광역시의 새로운 성장거점이자 동북아 물류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는 강서구 명지에서의 부산서부지원 개원은 강서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에 살고 있는 110만 부산시민들에게 뜻깊은 일이며, 사회적 약자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은 법원이라는 소신을 갖고, 부산서부지원을 재판 잘하는 법원, 신뢰받는 법원, 사랑과 행복이 가득 넘치는 법원으로 가꾸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유기준·김도읍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서부지원 개원이 서부산권 지역 주민들의 큰 기대를 받고 출범하기에 그에 걸맞은 역할을 당부하는 한편, 서부지원 개원에 따른 법원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1988. 9. 1. 부산동부지원 개원 이후 만 29년에 부산지방법원이 본원과 2개의 지원 체제로 출범함을 축하하고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테이프 커팅’과 ‘현판식’ 등이 방송국 및 신문사들의 취재 속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외빈들의 환송 이후, 김신 대법관은 사전에 식재된 80년된 적송을 기

념식수하고 표지석을 제막하면서 식수한 나무가 서부지원과 함께 건강하게 자라기를 기원하였으며, 연이어 내빈들과 함께 청사 순시로 법정 및 판사실, 각 실·과 등 주요 시설과 소담(구내식당), 도담(북카페) 등 복지시설들을 살펴보고 청사 곳곳에 다채롭게 전시된 회화작품 등 예술품을 감상하며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어진 오찬장에서도 밝은 분위기 속에서 서부지원의 개원을 다시 한번 축하하는 많은 덕담이 있었으며, 마지막 답사로 지원장은 “서부지원을 사랑과 신뢰받는 법원, 우리가 꿈꾸는 법원으로 만들어가겠다”고 인사를 하였다.

2017 OCTOBER

서울동부지방법원 '야구관람 문화행사'



이번 행사에 참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구성원 모두는 사무실이 아닌 푸른 야구장에서 동료들과 맥주 한 잔을 기울이며 즐거운 담소를 나누었고, 그 가족들 또한 청량한 가을 저녁 시간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법원장 이승영)은 2017. 9. 6.(수) 법원장과 법원구성원 등 2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잠실야구장에서 LG트윈스와 KIA타이거즈의 야구경기를 함께 응원하는 야구관람 문화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서울동부지방법원 구성원과 그 가족들이 관내 야구장에서 진행되는 경기를 함께 즐기며 상호간 편안하게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잠실야구장 측의 "서울동부지방법원 가족의 방문을 환영한다"는 전광판 메시지 제공에 서울동부지방법원 구성원과 그 가족들 모두는 힘찬 함성과 박수로 화답하였습니다.

'2017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 개최



특허법원(법원장 이대경)은 9. 6. (수) ~ 9. 7. (목) '2017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는 바바라 린(미국 텍사스 북부 연방지방법원장), 렌달 레 이더(미국 전 연방항소법원장), 미사오 시미즈(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장) 피에르 베롱(유럽 통합 특허법원 전문가 위원) 등 국내외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가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Court, IP and Business'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대경 특허법원장은 "각 나라별 특허보호 예측가능성의 결여는 글로벌 비즈니스의 심각한 장애물이다. 지식재산권 법관들의 교류와 토론을 통하여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지식재산권 분쟁의 예측가

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대경 특허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세계 지식재산권 법관들의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세계 지식재산법관 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P Judges)의 설립을 제안하여 콘퍼런스에 참가한 각국 법관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미사오 시미즈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장은 세계 지식재산권 법원 간의 교류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한국, 중국, 일본의 지식재산법원의 협력 방법으로 중요 판결의 영문 발행, 파견 등 인적 교류 활성화, 정기적인 심포지엄 개최를 제안하였습니다.

2017 특허법원 콘퍼런스는 기존의 포괄적인 논의에서 한 걸음 나아가 의약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산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허법적 쟁점에 관해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국제 지식재산권 법관들의 지속적인 협력 플랫폼(세계 지식재산법관 협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습니다.



법원사람들 원고모집

법원 가족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원고가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더불어 '스타일링 Q'와 '만나고 싶었습니다'에 참여해 주신 분께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 원고 분량 : PC로 작성할 경우 A4용지 3장 내외
- 원고 마감 : 수시
- 보내실 곳 : E-mail_법원사람들@scourt.go.kr
- 문의전화 : 02-3480-1456 공보관실
- 법원사람들 홈페이지 : <http://www.scourt.go.kr/portal/gongbo/PeoplePopUpList.work?gubun=7>

사법부 홍보를 위해 대법원 페이스북, 트위터와 블로그 "명쾌한 판사와 함께하는 법원스토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원 가족 여러분의 많은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 페이스북 주소 : <http://www.facebook.com/scourtkorea>
- 트위터 주소 : <http://www.twitter.com/scourtkorea>
- 블로그 주소 : http://blog.naver.com/law_zzang,
http://blog.daum.net/law_zzang
- 유튜브 주소 : <http://www.youtube.com/scourtkorea>
- 인스타그램 : <http://www.instagram.com/sourthkorea/>



지난호 퀴즈 당.첨.자.

권홍조 실무관 광주지법
김순임 법원보안관리대원 논산지원
박구호 실무관 대구지법
정미영 실무관 서울북부지법
유성원 실무관 영동지원



지난호 퀴즈 정.답.



다른 그림찾기

법원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법원사람들」을 만드는 데 반영하겠습니다. 2017년 「법원사람들」에 관한 소감을 '다른그림찾기' 정답과 함께 보내주세요.

서로 다른 부분을
다섯 군데
찾아주세요.

다른그림찾기 정답은 서로 다른 부분을 표시한 사진을 스캔한 후 e-mail에 첨부하여 해당 월 20일까지 보내주세요.

- e-mail : 법원사람들@scourt.go.kr
 - 소감과 다른그림찾기 정답을 모두 보내주신 분들에게 한하여 매월 추첨을 통해 대법원 기념품을 드립니다.
- 정답 및 당첨자는 다음호에 게재합니다.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김선홍 실무관

친절한 직원을 칭찬해주세요

저는 2017년 4월 21일 금요일 세종시에 있는 등기소에 공유물분할 등기를 신청하러 갔습니다.

일반 등기도 해본 적이 없는 제가 복잡한 공유물 등기를 직접 신청하러 간 것에 대해,

지금 본인이 생각해보도 다소 황당한 일일 듯합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도 될 일이지만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직접 해야 할 필요를 느껴,

공유물 등기라는 용어조차 모르면서 무작정 찾아갔지요.

담당 직원에게 제가 무엇을 하러 왔는지조차 명확히 설명을 못 하고 무작정 가져간

많은 서류를 주었습니다. 어떤 서류를 제출하는지 몰랐기 때문이었지요.

담당 직원은 서류를 훑어보며 이것저것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제가 대답을 하면서

담당 직원은 제가 왜 등기소에 왔는지를 깨닫고 필요한 서류 등을 설명해주었습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이해를 못 하는 저에게 조금의 싫은 내색도 없이

차분차분 설명해주시니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직원의 친절함에 마음속으로 감사하고 감탄하여 그 직원의 이름을 유심히 보니

김선홍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년 전 미국에서 1년간 살아보니 우리나라 관공서 직원들이

업무가 빠르고 친절하구나 하고 느꼈는데, 김선홍님은 그동안 제가 만난 분 중 가장 친절하다고

느껴져 칭찬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종등기소에 근무하는 김선홍님을 칭찬해주세요.

2017. 4. 이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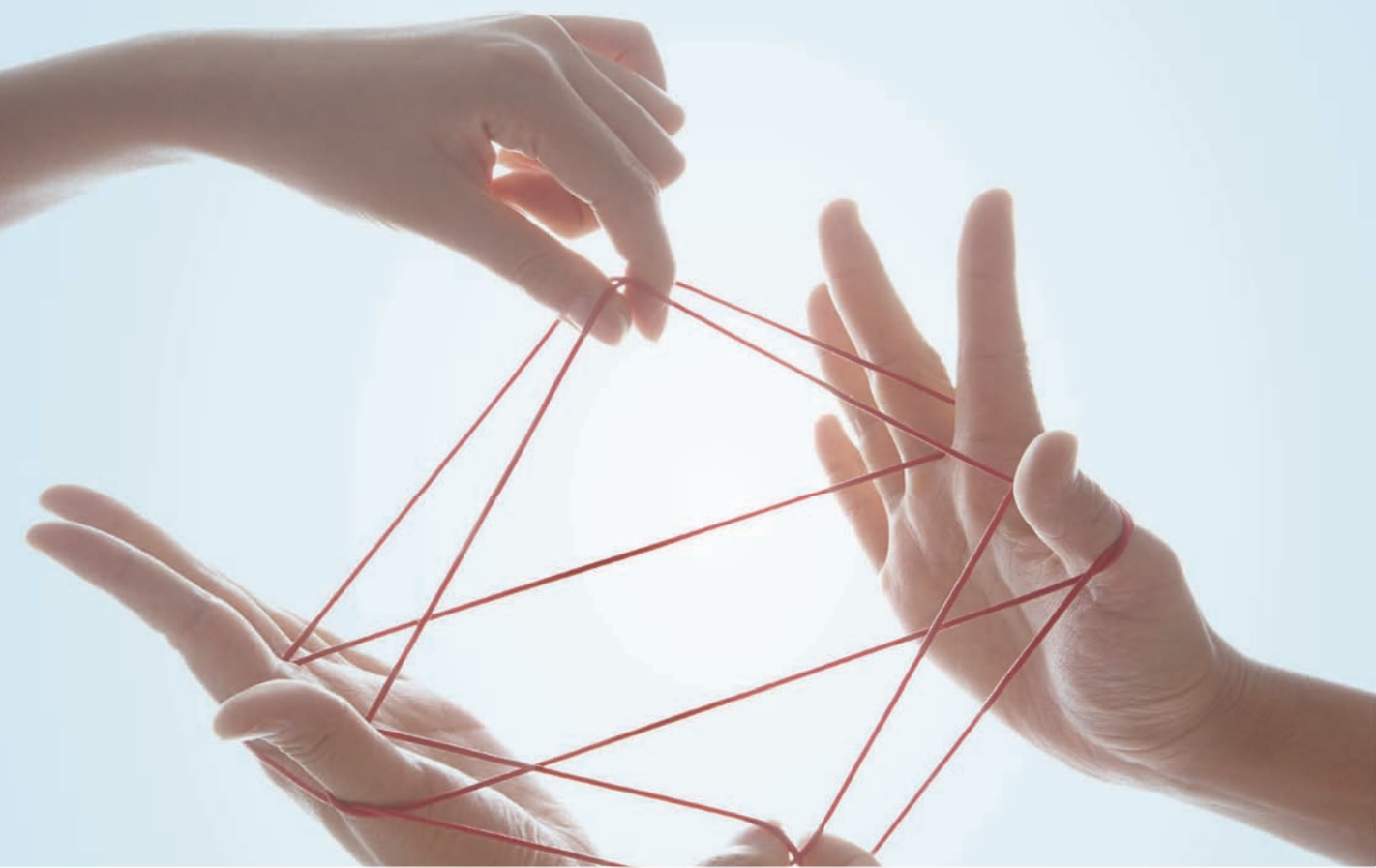
국민의 상식과
마음으로
국민과 함께

국민 여러분!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투명하고 민주적인 재판을 만들어갈 주인공, 바로 당신입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세요!



국민참여재판 제대로 알기



다양한 계층의 배심원

각계각층의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법정공방을 공정하게 지켜보고 피고인의
유죄, 무죄 등에 대해 판결합니다.



피고인이 신청

국민들 앞에서 억울함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로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합리적 배심원 선정과정

일반국민 중 무작위로 후보자를 뽑은 후
최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한
배심원을 선정합니다.



이해하기 쉬운 재판과정

배심원, 피고인 등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쉬운 용어와 자세한 설명을
통해 재판을 진행합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국민참여재판 홈페이지로 이동